참여 | 협력 |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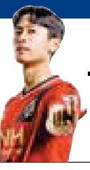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42호] 2023년 5월 15일

04 김영태 모교 병원장
"서울대병원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방파제다"

05 봄에 떠난 강화도 국토문화기행
베일 벗은 교동도의 시간을 엿보다


12 유준하 경남FC 프로 축구선수
"4수 끝에 오른 프로 무대, 우선 목표는 살아남기"

14 황경식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
25년간 검재·추사 작품 등 고미술 수집

1600여 동문 가족, 잠실 하모니

5월 10일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에서 1600여 청중들이 연주를 마친 금난새 지휘자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동문들로 구성된 합창단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제2회 나눔 가족음악회

수익금은 사회공헌기금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0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2회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에 160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해 깊어가는 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로비에 마련된 포토존에는 이날을 기념하려는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부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손주, V를 하며 수줍은 미소를 띤 재학생, 서로의 어깨를 둘러싼 동기들의 모습 등 행복한 에너지로 공간을 채웠다.

유홍림(정치80-84) 모교 총장은 이날을 "동문이 모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축제"라고 했다.

금난새(작곡66-70) 음악감독의 지휘에 맞춰 스타워즈 주제곡으로 문을 연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사라사테의 '나바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작품 18 중 3악장,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4번 4악장,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파랑돌' 등을 들려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금난새 음악감독 특유의 재치있는 해설이 중간중간 곁들여져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배가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동문합창단·OB합창단 80여 명과 함께한 무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 '할렐루야'를 부를 때 관객이 일어나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연출됐다. 김종섭(사회사업66-70) 회장은 "동문 가족들을 모시고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동창회와 모교를 성원해 주시는 동문 가족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관악경제인회(회장 이부섭), 농생대동창회(회장 서병륜), AMP동창회(회장 윤철주), FIP동창회(회장 윤무영) 등 여러 동창회와 동문들이 협찬금을 보내오며 서울대인의 잔치임을 확인했다.

행사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은 전액 재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관계기사 3면

조경일 하나제약 회장 장학금 10억원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1억 기부도

조경일(약학64-68·사진 왼쪽) 하나제약 회장이 5월 8일 본회에 장학금 10억원을 쾌척했다. 2009년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 1억원을 낸 데 이후 두번째 기부다.

명문제약과 하나제약을 경영해온 조 동문은 마취·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등에서 독보적인 의약품을 개발해 얻은 기업 이익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 왔다. 약학계 인재 양성을 위해 모교에 55억여 원, 중앙대 등에 5억여 원 등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등 30곳에 19억여 원을 기부했다.

많은 선행을 베풀면서도 내세우지 않아 이날 본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 기부금을 전달할 때도 극구 인터뷰를 사양했다. 김영중 모교 약대 명예교수는 "조경일 회장님은 조용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끈기와 열정과 집념이 강하신 분"이라며 "본인이 재학할 때 국가에서 받은 혜택을 후배들에게 돌려줘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말했다. 조 동문은 최근 "참전 용사를 기념하고 조명하는 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국내 대학은 미진해서 아쉽다"는 뜻에서 6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음악회에도 1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7일에는 김형진(AIP 21기) 세종텔레콤 회장이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김 회장은 증권사 경영에 이어 통신기업, 블록체인과 AI 등 미래 산업까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한 창업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큰딸 정현영(불문10-15) 동문의 이름으로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던 정기웅(대학원83-89) 동문도 1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하다 잠시 귀국해 본회를 찾은 정 동문은 "딸의 꿈을 다른 사람이 이어주길 바라며 했던 지난 기부가 가족에게도 많은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송우엽 사무총장·김동규 사무차장

본회는 5월 1일 송우엽(체육교육79-83·사진 왼쪽) 동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사무차장에는 김동규(경영80-84·사진 오른쪽) 전 흥국F&B 전무가 선임됐다.

송우엽 신임 사무총장은 운동심리학 박사로 성균관대와 국민대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 왔으며, 현재 한국스포츠심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ROTC동문회 사무총장, 동창골프회 단장 등을 역임하며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했다. 송 사무총장은 "모교가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동문들이 즐겁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사무차장은 1961년 부산 태생으로 모교 경영학과와 모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신용평가 이사 등을 역임했다.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관악춘추

천원의 식사가 따뜻한 한 끼가 되려면

하임숙
영문91-95
채널A 보도제작에디터
본지 논설위원

먹는 문제는 언제나 삶의 핵심이다. '따뜻한 한 끼'는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하루를 뚜벅이며 걸어가게 하는 동력이고, '밥벌이'는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생존해야 하는 직장인의 애환과 동의어다.

최근 대학가를 강타하고 있는 '천원의 식사'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상의 축약판이다.

2012년 순천향대에서 시작돼 올해 41개 대학으로 확산된 천원의 식사는 대학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본교는 재학생들에게 학생회관에서 2015년부터 아침식사를 제공했고, 2016년부터는 저녁으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는 점심까지 천원의 식사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식사할 경우 최소 5000원은 될 것이니 큰 혜택이다. 중복 이용자를 포함해 연 평균 이용자만 작년 기준 28만명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 대학은 '천원의 아침밥'만, 그것도 매일 70~100명에게만 제공한다. 연 평균 이용자가 많아야 3만여 명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아침밥을 먹으려 학생들은 아침마다 '오픈런'을 벌이고 있다. 본교는 찬 4가지에 먹을 만한 음식을 제공하지만 컵라면에 삼각 김밥 정도 내놓는 대학도 있다.

대학 간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학교 재정과 기부금이다. 애초에 본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생들 복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시작한 사업이 정부가 예산을 태우고, 정치권이 뛰어들면서 울며겨자먹기로 동참한 대학들도 많다.

식재료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천원의 식사 원가는 최소 3000원이 넘는다. 특히 최근 밥상물가가 급등했고, 최저임금이 1만원 코앞까지 오르면서 원가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가 한 끼당 천원을 '매칭 지원'한다 해도 적자를 지속 감수할 여력이 되는 대학은 많지 않다.

애초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쌀 소비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가 절실한 정치권이 무차별적으로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세금 부담과 대학 재정난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 정부는 천원 식사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 하고 야당은 모든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먹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이는 전제가 있다. 안정적 재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먹고 사는 문제에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지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전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같은 정치권의 비이성적 포퓰리즘을 보면 천원의 식사가 그리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5월 9~11일 관악캠퍼스 잔디광장 등 캠퍼스 일원에서 봄 축제 '리오 더 오리'가 열렸다. 사진은 축제 첫날 잔디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야간 캠핑을 즐기는 모습.

서울대 축제 가면 바보? 심심할 틈이 없어요

모교 봄 축제 '리오, 더 오리'

잔디광장 완공 후 처음 열려
'바나나 전시 논란' 등 풍자도
본회서 축제비용 일부 지원

"서울대 축제가 재미없다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서울대 축제는 유독 기대감이 낮다. '서울대 3대 바보 중 하나는 서울대 축제 가는 사람'이라는 유구한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러나 축제 현장에서 만난 재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5월 9~11일 관악캠퍼스 잔디광장에서 봄 축제 '리오, 더 오리'가 개최됐다. 모교 축제 전담기구인 축제하는 사람들이 주최하고 본회를 비롯해 SKC, 본디, 한국파이롯트, NH농협은행 등 기업들에서 후원했다.

팬데믹 이후 두 번째 대면 봄 축제인 이번 축제는 지난 겨울 완공한 잔디광장에서 관람객을 맞았다. 아트마켓과 푸드마켓, 게임, 버스킹과 공연, 캠핑, 게임 토너먼트 등이 3일간 이어졌다. '교조인 학은 되지 못했어도 누구보다 축제를 즐기는 오리'라는 모교 축제 마스코트 '리오'가 메인 테마였다.

학생들이 직접 차린 축제 부스에선 재기발랄함이 엿보였다. 첫날부터 '서울대 축제에 나타난 카텔란의 바나나'가 SNS상에 화제가 됐다. 최근 설치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국내 전시에서 벽에 실물 바나나를 붙여둔 작품을 모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관람객이 먹어버린 일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현대미술 너무 어려워요' 부스는 이 논란을 아이디어로 승화시켰다. 화제의 전시와 똑같이 덕트 테이프로 붙여둔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다시 붙이면 '예술가 증서'를 증정했다. 용기 있는 관람객이 나타나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합세해 박수를 보냈다. '아날로그 사진관' 부스는 19세기 사진술인 습판 사진 방식의 카메라로 즉석 사진을 찍어줘 인기를 끌었다.

뜨거운 봄볕에 장터 부스에선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일회용기 없는 봄 축제'를 표방해 잔디광장 한쪽에서 다회용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관악 게임 토너먼트 결승전에선 팀전으로 인기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많은 이들이 흥미롭게 지켜봤고, '리오 올림픽' 코너에선 물총 쏘기와 계주 등 참가자들이 잔디광장을 내달리며 땀을 뻘뻘 흘렸다. '인생 네 컷'과 양궁, 미니 축구, 낚시 게임 부스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다. 마침 모교에 견학 온 고교생들이 축제장에 들러 흥미롭게 구경하기도 했다.

축제 첫날 밤엔 잔디광장에 여러 개의 텐트가 설치돼 캠핑을 하며 공연을 즐겼다. 그밖에도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공연이 지속적으로 열렸다. 걸그룹 '있지(ITZY)'가 초청 공연을 펼친 폐막제 때 잔디광장 일대는 발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찼다.

축제 현장에서 만난 신입생들은 '서울대 축제가 재미없다는 얘길 듣긴 했지만, 막상 와보니 재밌고 즐겁다'고 말했다. 코스프레 차림으로 등장해 시선을 끈 애니메이션 동아리 '노이타미나' 새내기 회원들은 "동아리 부스는 없지만 홍보 겸 나왔다"며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고 있었다. 먹거리를 들고 축제장을 나서던 재학생 최모씨(자유전공23입)와 신모씨(자유전공23입)는 "잔디광장에 한정해서만 축제 분위기고 다른 곳은 조용한 게 아쉽다. 학교 전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또 부스 말고도 즐길거리가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재학생 오모씨(화학교육21입)와 박모씨(화학교육21입)는 "잔디밭이 학교 중앙에 있다는 게 좋은 것 같다. 다만 평지여서 버들골에서 열린 축제보다 공간이 휑해 보이고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시한 분위기가 아니라 재밌게 참여하는 걸 보니 많이 준비한 게 느껴지고 대학교 축제답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학교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서울대 축제가 상대적으로 재미없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겪어보면 다르다"고 말했다.

모교 학생회는 2003년부터 산하에 축제 전담 기구 '축제하는 사람들(축하사)'을 만들어 축제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있다. 구현준(간호20입) 부축장은 "코로나 때도 비대면 축제를 계속한 덕분에 작년 대면 축제를 재개할 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새 잔디광장은 참고 자료가 없어 고생하긴 했지만 광장 공개 시점에 맞춰 축제를 열게 되어 좋았다. 총동창회에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1. 봄 축제가 열린 관악캠퍼스 잔디광장 전경. 완공된 잔디광장을 사용한 첫 축제다. 2. 애니메이션 코스튬플레이를 하고 축제장에 온 학생들. 3. 관악 게임 토너먼트에서 팀을 이뤄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는 학생들.

50년 전 대학신문엔 '파트너 구해 줍니다'

청년문화 상징이란 책임감 커
권위주의 정권시절 휴교령 빈번

학원사태와 휴교령이 빈번했던 1970년대. 힘든 시절에도 대학생들은 대학문화이자 청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축제를 공들여 가꿨다. 모교의 경우 1975년 이전까지 곳곳에 흩어진 단과대별로 강한 개성을 지닌 축제들이 성행했다. 문리대 '학림제', 공대 '불암제'. 법대 '낙산제', 상대 '홍릉제', 사대 '청량제', 농대 '상록제', 가정대 '아람제', 치대 '저경제', 약대 '함춘제' 등이다. 당시 축제는 학술강연회, 토론회, 체육대회, 음악회, 촌극, 모의국회 등 다양한 학생 행사가 집약된 장이었다. '대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도 분명해 문리대는 축제에도 4·19 정신을 계승하는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축제에 임하는 자세가 마냥 진지할 수만은 없을 터. 마지막날엔 카니발을 열거나 운동장에 모여 이성 파트너와 블루스, 디스코, 포크댄스를 추는 것이 관례였다. 여대생 수백 명이 축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커플들의 앞엔 1960년대 주로 마시던 막걸리가 아닌 생맥주가 놓였다. 인생의 반려자를 축제에서 찾은 학생도 많았다.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 후 학도호국단 주관으로 범서울대 축제인 '대학축전'이 열렸다. 학생 주도의 축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7일간 열린 제1회 대학축전은 성대했다. '동창의 날'도 있어 마치 홈커밍데이처럼 총동창회장과 동문들이 참석해 축제에 어울렸다. 아직 관악으로 이전하지 않은 단과대학은 각각의 캠퍼스에서 축제를 열었다.

1970년대에도 외부 연예인이 축제에 초청됐다. 고려대 출신 학생 가수 김상희씨가 모교에 초청되어 '대머리 총각'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언제나 축제 즈음엔 파트너 구하기가 고민이었던 듯하다. 1976년 가을 축제를 앞두고 대학신문에 '파트너가 없는 남녀 학생들을 짝지어주겠다'는 공고가 실렸다. '접수장소인 학생회관 3층 여학생부실이 신청자로 장사진을 이뤘는데, 성비는 남성이 9 대 1로 압도적이었다'고 기록됐다.

1975년 축제를 즐기는 남녀 학생들.

1970년대 중반부터 서구 문화가 만연한 것을 반성하며 축제에서도 민속 문화의 비중이 커졌다. 1979년 모교 축제 중 열린 봉산탈춤 공연에는 1000명의 관객이 모였다. 당시 출연자 몇 명이 빠져 공연을 취소하려 했지만 뜨거운 성화에 못이겨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무대서 하나 된 프로, 아마추어, OB, 재학생

오케스트라, 동문합창단 함께
동창회 행사 온 학생들 눈길

동문들로 구성된 합창단과 금난새 지휘자,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연주를 마치고 청중에게 인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재학생 바이올리니스트 두 명과 동문들로 구성된 합창단 두 팀.

프로와 아마추어, 재학과 졸업의 경계를 넘어 서울대인 모두가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됐다. 올해로 두 번째 맞은 '서울대 나눔 가족음악회'에서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 동문이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바이올린 듀오 권예은, 최주하 양과 서울대 동문합창단, 서울대 OB합창단 등이 무대에 오른 것.

권예은, 최주하 양은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나란히 모교 기악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때론 경쟁하고 때론 격려하며 서로의 성장을 독려해온 두 바이올리니스트의 모습은 서울대인의 우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권 양은 "솔직히 라이벌 의식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같은 악기를 하며 겪는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서로 의지하게 되는 단짝"이라고 말했다. 최 양은 "승부욕을 불태우며 연주할 때보다 오롯이 내 음악에 집중할 때 진심이 담기더라"고 하면서 "듀오나 실내악, 오케스트라에 임할 땐 같이 호흡하며 앙상블을 맞추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둘이 들려준 곡은 파블로 사라사테의 '나바라'. 제목은 작곡가의 출신지인 스페인 북부의 지명에서 따왔다. 본디음과 그 2도 위의 도움음이 떨듯이 교대로 나타나는 '트릴'과 손가락을 줄에 가볍게 대 2옥타브 위의 음을 얻는 '하모닉스' 등 다양한 주법이 포함돼 화려하고 신나는 음악이다. 최 양은 "새소리를 표현한 트릴 섹션을 비롯해 짧지만 다양한 매력을 뿜어내는 곡"이라고 소개했고, 권 양은 "두 악기가 서로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바이올린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두 바이올리니스트는 여성 협연자가 으레 입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검은 바지와 감색, 분홍색 상의를 각각 입었다. 금난새 동문이 무대를 오가며 혹시라도 드레스가 밟힐까 봐 복장에 대해 조언했다고. 두 사람을 돌아 세워 상의 뒤에 달린 커다란 리본을 보여주자, 객석의 선배들은 귀여운 후배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동문 가족들.

협찬 감사합니다

1000만원	
△재단법인 관악회	
△관악경제인회	(회장 이부섭)
500만원	
△농생대동창회	(회장 서병륜)
△AMP동창회	(회장 윤철주)
300만원	
△HPM동창회	(회장 백승호)
200만원	
△공대동창회	(회장 정진섭)
△체육교육과동창회	(회장 나영일)
100만원	
△간호대동창회	(회장 허 영)
△생활대동창회	(회장 정혜원)
△치대·치대원동창회	(회장 정상철)

※협찬 동문 전체 명단은 17면.

프로 연주자들에게도 국내 최고로 꼽히는 무대, 롯데콘서트홀에서 아마추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감격스러운 일.

신동수(작곡78-84) 서울대 동문합창단 단장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 선생님, 뛰어난 동문 아티스트들과 함께 꿈의 무대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OB합창단과 함께 부른 곡 '할렐루야'에 대해선 "고금의 모든 합창곡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라며 "종교를 떠나 세계인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드는 인류의 귀중한 음악 문화 유산"이라고 소개했다.

김현석(기계설계86-90) 서울대 OB·YB합창단 동문회장은 "우연히도 지난 2월 12일 서울대 합창단 43주년 공연을 롯데콘서트홀에서 했었다. 까다로운 심사도 통과했지만 대관료가 굉장히 비싸 다신 여기서 하지 말자 했었는데(웃음), 총동창회 덕분에 다시 이 무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창은 볼륨감을 위해선 인원수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동문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덧붙였다. 한 곡으로 아쉽지 않냐는 질문엔 "금난새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합창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답했다.

관람 소감에서도 금난새 동문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최규훈(체육교육94-00) 동문은 "금난새 지휘자의 세련된 멘트가 연주곡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동시에 각 곡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말했고, 강용수(재료공학20입) 학생은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한 몸처럼 움직여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무대 뒤편에 연주자가 트라이앵글을 치는데 작은 음 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연장을 찾은 정팔도(AIP 1기) 동문은 힘차게 엄지를 추켜세웠다.

이날 음악회엔 재학생 150명이 초대됐다. 이인서(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석사 1년)·이수아(자연과학대학원 석사 1년) 커플은 "학교가 축제 중이었지만,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에 더 끌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금난새 지휘자의 공연이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재현(자유전공20입) 총학생회장은 동창회 직원들과 함께 재학생에게 티켓을 배부하기도 했다. 금난새 동문은 공연 중간 음악회 팸플릿을 살피며 자신이 인쇄된 "앞면보다 뒷면이 더 좋다"면서 뒷면에 명단이 실린 협찬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다음 음악회 땐 더 많은 정성이 모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경태 기자

관악극회

이순재 동문 주연 '리어왕' 6월 1~18일 LG아트센터서

관악극예술회(회장 윤완석)가 5월 10일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 2층에서 연극 '리어왕'의 프레스 연습실 공개 행사를 열었다. 리어왕은 지난 2021년 관악극회 창단 10주년 기념 겸 이순재(철학54-58) 동문의 연기 인생 65주년 헌정을 위해 특별 기획됐던 작품으로 당시 23회 전 회차 전석 매진에 앙코르 공연까지 이어갔었다.

관람을 놓쳐 아쉬워하는 관객을 위해 6월 1일부터 18일까지 16회에 걸쳐 강서구 마곡동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에서 다시 상연한다.

1935년생 이순재 동문은 리어왕을 연기한 최고령 현역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는 "기네스북 등재가 중요한 건 아니"라며 "이젠 대사 외우기도 쉽지 않아 극 중 깜빡하면 막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어왕을 연기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배들이 더 멋진 리어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고대 브리튼 왕국은 귀족과 서민 사회의 괴리가 매우 컸다. 그런 시대에서 리어왕이 서민을, 민의를 돌아보는 모습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글로스터 백작 역을 맡은 최종률(회화66-73) 동문은 "기원전 8세기 실존했던 왕국의 분위기가 물씬하도록 의상과 무대 디자인을 바꿨다. 고전미의 극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연출을 맡은 김시번(경영90-97) 동문은 "고대 전투 장면을 스펙터클 하게 연출했다"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동문은 "번역투의 문장을 지양하며, 원문의 묘미를 살리는 동시에 생경한 단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데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인터미션 15분 포함, 러닝타임 200분.

문의: LG아트센터 서울 1661-0017

“서울대병원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방파제다”

김영태 (의학82-88)
서울대병원장

대담 : 오정환 (공법83-87)
MBC 부장·본지 논설위원

3월 15일 서울대병원 제19대 병원장에 김영태 동문이 취임했다. 김 동문은 부모, 누나, 부인, 두 자녀가 모두 의사다. 가족들이 모이면 의학 세미나 수준의 대화가 오갈 정도라고 한다. 현재 병원장실이 있는 대한의원 시계탑 건물은 어린 시절 부친 고 김종환(의학50-57) 모교 명예교수를 따라 드나들던 공간이다. 동문인 아들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다. 의료계, 서울대병원에 대한 애정과 책무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3일 만난 김 병원장은 조용한 말투로 필수의료 붕괴 위기 등 병원 현안에 대해 1시간에 걸쳐 소신을 밝혔다. 취임 기자간담회는 있었지만, 단독 인터뷰는 총동창신문이 처음이다.

-취임사에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어떤지,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제 전공인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지원자가 오래전부터 줄고 있고, 최근 소아과, 산부인과 지망생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지원자가 주는 것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지원자가 주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네에 소아과 의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초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지요.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중앙병원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모두가 인정합니다만 어린이병원 특성상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 폭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소아과, 산부인과를 전공하려는 의대생이 늘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 전문의 인력풀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마침 대통령께서 오셔서 어린이병원 인력을 증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의 가치가 있고,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수한 인력들이 따라오리라 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병원 교수 수도 늘려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길도 넓히려고 합니다. 필수 의료진은 야구에 비유하자면, 미국 메이저리그의 투수입니다. 젊은이들이 의사의 길로 들어섰다면 메이저리그 투수가 돼야겠다는 포부도 가졌으면 합니다.”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의료수가가 현실화돼야 합니다. 아이들은 주사 한 번을 놓을 때도 어른보다 두 배 이상 힘이 듭니다. 또 아이들을 몇 명 낳지 않다 보니 부모님들의 마음이 지극합니다. 작은 의료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귀지를 빼다가 살짝 찔려 피가 나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왔던 의사들도 ‘이걸 계속해야 하나’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걸 옆에서 본 후배, 동료들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요. 의료사고 문제, 적절한 수가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필수의료분야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처벌하는 예가 있나요.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생각 못하죠. 미국도 형사처벌은 매우 드물고요. 영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까요?

“어린이병원뿐 아니라 우리 병원 전체가 적자입니다. 비영리기관이고, 국가중앙병원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교수진이나 의료진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많습니다. 우리 할 일이 진료뿐 아니라, 교육, 연구, 공공활동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료에 100% 매진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료 인력으로만 100% 쓰는 병원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병원은 더 심각하고요. 그러니 어느 대형병원도 어린이병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울대병원까지 안 할 수는 없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밖에 서울대병원의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포부를 들려주십시오.

“문제점은 많죠. 일단 병원이 오래돼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지적도 받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을 따뜻하게 대할 여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가 숙제인데, 사실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힘들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환자를 치료하는 선한 직업이기 때문에, 자긍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상해주고, 스스로 리마인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경기도 시흥의 배곧서울대병원과 서울 노원구 서울대병원 건립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대규모 의료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왜 필요한지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시흥 배곧의 경우 경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무척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거든요. 의료 서비스 공급이라는 면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았지요.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 전체 기능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혜화동 본원 외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고 보라매병원과 교통재활병원 등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병원이 완공되면 거기도 위탁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런 한 병원들이 있음으로써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진료 데이터를 잘 살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 병원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은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보라매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진료하는 역할, 교통재활병원은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각 병원의 데이터를 잘 축적, 활용하면 미래 병원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 산업계와 연계해 바이오 클러스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병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정책 중 오랜 논란의 대상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언젠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경우, 20년 전부터 원격진료를 연구해 왔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아직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게 많다는 것이죠. 정밀한 의료 디바이스가 병원 모니터와 연결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또는 온라인상 몇 마디 말과 영상만으로 진료를 보기에는 아직 위험이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개인별 의료 디바이스, 통신 등이 발전하고,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가까운 미래에 모니터를 보며 진료할 날이 올 겁니다.”

-병원장님께서는 폐암 치료의 권위자이십니다. 공포의 대상인 폐암 치료와 관련해 환자들을 위한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폐암에 걸립니다. 두 번째는 흡연자 분들은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폐에 뭔가 생겼다 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폐암 치료 수준이 높고, 병원들이 평준화돼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믿고 맡기시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며, 만족하시는지요.

“부모님이 의사셔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고치는 삶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왔고,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그에 대해 존경도 받고요. 월급까지 주잖아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셨나요? 대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런 답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공부만 하기도 벅차더라고요. 다른 활동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수업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들었어요. 30분 지각 한번 한 게 전부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요?

“의사는 의료 지식에 있어서 누구한테도 부족하다는 소릴 들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정말 지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전공 의료 지식에 있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 중에 술 마신 다음 날 컨퍼런스에 안 나오는 제자들한테는 반성문을 받았습니다(웃음).”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흉부외과 2년차 주치의 할 때 인턴이었습니다. 좀 엄하게 일을 시켜서… 저를 미워한 줄 알았는데, 잘 따라오기는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사귀자고 했고, 친하게 됐죠. 지금 소아과 의사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모두 전문직일 경우에 자녀 교육에 쏟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자녀를 모두 의사로 키우셨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공부하라고 압력을 안 준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스스로 공부를 했고, 자식들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경쟁이 덜한 강북에 산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끔 헬스장에서 스트레칭 수준의 운동을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은 안 하고요. 트레이너가 몇 번 시켜보더니 저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하라고 하더라고요(웃음). 나쁜 음식 안 먹고, 술도 최소한으로만 마시고, 규칙적으로 잘 자는 게 건강에 중요한 것 같아요. 정기 건강검진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병원장님 인생에 나침반 역할을 해준 것은 무엇인지요?

“막연하지만, ‘올바른 삶을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올바르게 살면 행복해지는 것 같고요.”

정리=김남주 기자

적정 수가, 의료사고 제도 보완 필요

어린이병원 인력풀 확대해 인재 양성

폐이식·폐암 분야 세계적 권위자

3대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김 동문은

이영균 병원장 이후 37년 만에 나온 흉부외과 출신 병원장이다. 폐이식과 폐암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지난 2007년 폐기능 소실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에크모(ECMO, 체외산소공급) 연계 폐이식에 성공했다. 지난 2017년에는 2세 미만 영유아 폐이식에 성공했으며 2018년에는 성인 폐를 소아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폐암 관련 연구논문도 수백편 발표했으며 폐암 표적치료와 면역치료, 수술을 병합하는 다학제 진료로 치료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시아흉부심장혈관학회(ATCSA) 조직위원회 사무차장, 세계최소침습흉부외과학회(ISMICS) 이사, 대한흉부외과 국제교류위원, 대한암학회 이사, 대한폐암학회 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세계폐암학회(IASLC) 아시아 대표이사다.

4월 20일 본회 국토문화기행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강화 교동도를 다녀왔다. 예로부터 개성과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으로서 교동도의 군사적 중요성은 컸다. 최근 복원된 교동읍성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베일 벗은 교동도의 시간을 엿보다

북한과 2.6km 거리 경계 삼엄
어업보다 농사 주업, 쌀 특산물
연산군 등 왕·왕족 유배 흔적도

서해의 '인후지지(咽喉之地)' 강화도의 부속 섬 중에서도 교동도는 개성과 한양으로 가는 목구멍 같다 해서 '양경인후(兩京咽喉)'로 불렸다. 그래선지 삼켜낸 것도 많았다. 유배자의 쓸쓸함, 2.6km 거리 북녘서 넘어온 실향민의 그리움, 바다로 막힌 시간의 흐름까지. 그런 교동도가 꾹 삼킨 매력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2014년 강화도와 이어지는 교동대교가 놓이면서다. 지정학적 긴장감과 벼가 쑥쑥 자라는 옥토의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섬. 가는비 내리던 4월 20일, 본회 국토문화기행에 나선 30여 동문이 안갯속 교동도를 헤집고 다녔다.

교동도는 차를 타고 닿을 수 있는 서북쪽 끝 땅이다. 서울에서 달린 지 1시간 반 만에 교동대교 앞 해병대 검문소 앞에 멈춰섰다. 간단하지만 엄격한 절차가 황해도 코앞의 민통선 지역임을 실감케 한다. '이곳은 바다가 철책이고 휴전선'이라는 이민부 교수의 말에 다리를 건너며 본 바다는 헝클어진 펄 외에 두터운 해무가 모든 것을 가렸다. '많은 걸 보여주진 않겠구나' 긴장이 됐다.

처음 하차한 곳은 '고구1리' 표지가 세워진 고구저수지 입구. 관광객은 안쪽으로 내달리기 바쁘고, 낚시꾼은 물만 바라보는 이곳에 굳이 멈춘 이유는 고구리 읍성터를 보기 위해서다. 저수지 맞은편 '교동동로 293번길' 초입 흙과 마른 넝쿨이 뒤덮여 흔한 동네 구릉처럼 보이는 곳 앞에 이민부 교수가 섰다. '여기가 성벽이었다'는 말에 모두 고개를 갸웃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교동도 중심지는 고읍리(현 고구리)였습니다. 화개산 북쪽에 고구려 방향으로 성을 지었는데 산 남쪽으로 성을 옮기면서 엉망이 됐죠. 조금만 걷어내면 남은 성이 보이고 보존도 할 텐데, 안타까워요." 조선 중기 옮겨 지은 교동읍성은 남아 있던 문루나마 살려 복원했으니 사정이 낫다. 옛 성터의 무상함에 여기저기 탄식이 흐른다. 그러다 누군가 간신히 드러난 성돌 몇 개를 가리키자 보물 찾은 듯 기뻐했다.

교동도에서 현재 유일하게 배를 댈 수 있는 포구인 남산포. 사신당이 주변에 있다.

잊혀진 것은 성만이 아니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교동도는 연산군, 광해군, 안평대군 등 왕과 왕족의 단골 유배지였다. 수도와 가까워 감시하기 쉽고 나오기는 어려우니 제격이었을 터다. 연산군은 1506년 9월 가을바람 부는 교동도에 들어와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문을 연 화개정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니 연산군의 위리안치소를 재현해 놓았다. 주변은 화려한 꽃대궐이라 가시돋힌 탱자나무 둘러친 한 칸 방이 더 쓸쓸하다. 한 동문이 '인수대비가 저희 집안 분이라 연산군과 먼 친척인 셈'이라며 유심히 둘러본다.

다시 광대한 논 사이를 달리며 오로지 농사만 짓는 섬이란 게 실감 났다. 산업시설도 정미소와 농기구상 정도다. 어업은 드물고 축산 농가도 없다. 고려 초 왜구와 중국을 방어하려 주둔한 군사들에게 농사 짓게 한 것을 시작으로, 끈질긴 개간과 간척 끝에 세 개의 섬 사이를 메워 평야를 만들었다. 이민부 교수는 "습지대를 농경지로 바꿔 가면서 쌀 농사 생산성이 계속 높아졌다. 교동도에서 1년 농사지은 쌀로 강화군민은 4년, 교동도 사람은 58년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쌀맛도 좋다"고 알려줬다.

고립된 섬이기에 논 가운데 작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는 '물광', 윗논에 물을 채워 모내기철 아랫논에 보내는 '동답' 등 여러 꾀를 냈다. 농경지 아래 펄 성분이 많아 물 가두기에 좋은 땅이다. 그것도 모자라 교동평야에 마르지 않는 젖줄을 대려 만든 것이 난정저수지다. 둑 위에 오르자 '저수지인가, 바다인가' 싶다. 둘레만 5km인데다 안개로 바다와 구분이 안 되는 탓이다. 인근 논 옆 관개수로에도 새파란 물이 넉넉히 흘러 보는 마음이 다 든든하다.

섬 곳곳에 있는 주민 대피소 앞을 기웃대자 트럭을 탄 마을 주민이 언뜻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간다. 지리적 여건 탓에 여러 혼란을 겪은 섬이다. 6·25 이후 북한 연백평야에서 건너온 실향민만 3만명, 섬의 중심지 자체가 그들을 따라 대룡리로 이동했다. 실향민들이 고향 연백시장을 본떠 만든 대룡시장은 꼭 들러야 할 명소로 꼽힌다. 옛날 다방과 이발소 등 1970년대 모습을 간직한 분위기에 좁다란 골목 양쪽에서 호떡과 꽈배기 냄새가 진동해 지갑이 스르르 열린다.

대룡시장에서 차로 7분 거리, 남산포는 해안 경계가 삼엄한 교동도에서 유일하게 어선이 드나드는 포구다. 새우가 맛있기로 유명한데, 영험하기로도 이름났는지 날이 좋을 땐 해안가에 카스테라며 맥주를 가져다 놓고 기도하는 여인들이 보인다고 했다. 포구 앞 비탈 위에 고려 때 뱃길로 오가는 송나라 사신들의 안전을 빌던 사신당이 남아 있다. 마침 사신당 앞에서 기도하다 자리를 거두는 무속인이 있어 호기심 많은 동문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건넸다. 이민부 교수는 "교동도에는 신당이 유독 많고 불쌍한 연산군의 넋을 기리는 이들도 있다. 삶이 힘든 지역일수록 개인적인 신앙에 의지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사신당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된 것은 가파른 비탈길에 '이거라도 잡으라'며 한 동문이 내민 장우산 대였다. 그 배려 덕에 한 명도 엉덩방아를 찧지 않았다. 정년 후 교동도에 자리 잡았다는 백종만(사회사업73-77 전북대 명예교수) 동문이 연락을 받고 잠시 들러 인사하기도 했다.

섬 안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동읍성과 1127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 교동향교에 들를 수 있다. 향교는 그 시절 지방국립대인 셈이니 섬의 교육열을 짐작게 한다. 교동도 출신 위인 중 한 명이 한글 점자를 창시한 박두성 선생이다. 서울사대 전신인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1913년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취임해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알게 된 후 한글 점자 개발에 6년을 매달렸다. 1926년 반포한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오늘날까지 쓰인다. 교동면 상용리에 생가를 복원해 뒀다. 박두성 선생의 연보와 점자 체험시설이 있다.

생가 맞은편 박두성 선생이 출석했던 교동교회 옛 예배당이 있다. 검박한 건물과 종루가 완벽한 옛 교회 모습 그대로다. 창문으로 예배당 안을 들여다 보니 감리교식 구부러진 십자가가 보인다. 종루의 끈을 잡아당기자 불순물 없는 청아한 울림이 퍼져나갔다. 종 치는 포즈로 사진 촬영을 부탁했던 한 동문이 "너무 많이 치면 종소리 듣고 교회 올라" 씩 웃으며 카메라를 받아갔다.

궂은 날씨 탓에 화개산 전망대를 건너뛰었다. 비를 맞으며 섬을 나오는 길에 못 보았던 풍경들이 눈에 밟혔다. 다음에 오면 또 다를 거라고, 속삭이는 섬이 등뒤로 멀어져갔다.

박수진 기자

1. 교동도 고구리 옛 읍성터를 찾은 동문들. 2. 화개정원에 교동도에 유배됐던 연산군의 위리안치소가 남아 있다. 3. 실향민들이 고향 시장을 본떠 만든 대룡시장은 옛 정취가 넘친다. 4. 소박한 지음새의 교동교회 옛 예배당.

신임 단대동창회장 인터뷰

의대·병원·동창회 '삼위일체'는 한몸입니다

의대동창회
한규섭 (72-78)
모교 명예교수·씨젠의료재단 대표의료원장

"연건캠퍼스에는 의대와 동창회, 그리고 모교 병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모두 서울의대 졸업생인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없지 않죠. 워낙 우수한 인재들이 나눠 맡다 보니 웬만한 업적으로는 서로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모교 병원 교수가 뛰어난 임상 성과를 내면 최고의 연구 환경에서 그 정도의 업적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다든가, 동기회나 동창회에서 기부금을 모아 모교에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졸업생으로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고맙다, 바쁜 가운데 정말 수고했다, 서로 박수쳐 주는 분위기가 돼야 서울의대가 국내 의료계의 중심을 넘어 세계 의학의 중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월 21일 의대동창회장에 취임한 한규섭 씨젠의료재단 대표의료원장은 의대와 병원, 동창회는 하나라는 '삼위일체론'을 펴며, 서울대인 사이에 응원과 격려의 문화가 퍼질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년 모교 의대 교수로 정년 퇴임한 그는 모교 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대학과 병원에서 여러 보직을 두루 경험했으며 의대동창회 이사, 부회장 등으로 10년 넘게 봉사해왔다. 5월 3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씨젠의료재단 원장실에서 한규섭 신임회장을 만났다. 씨젠의료재단은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대 출신이 모교에 정착해 교수가 되기도, 모교 병원에서 진료를 맡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동문들이 서울대를 떠납니다. 정원이란 게 있어 불가피하게 타 대학 의대 혹은 다른 대형병원에 정착하거나 의원을 개원하지만, 그들의 실력이 결코 모교에 남은 동문들에게 뒤지지 않아요.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료인 중에도 서울대 출신이 월등히 많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 동시에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요. 그런 동문들에게 동창회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불어넣는다면, 동창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도 선순환을 꾀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회장은 의료인 특유의 이타심 덕분에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매년 3000여 명의 동문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찬조금도 꾸준히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동문들에게 동창회 소식을 전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동창회 살림을 꾸릴 정도라고. 한 회장은 나아가 각 대학 의대 및 병원의 지회와 동기회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 또는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지회나 동기회에, 동창회에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뜻.

"의대에서 맺은 인연은 평생을 갑니다. 최근엔 정년 퇴임한 은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초빙하는 문화도 생겼죠. 사제 간, 선후배 간 정이 끈끈할 수밖에 없어요. 모교에 오래 있었으니 후배 교수들에게 동창회 행사 참석을 독려할 생각입니다. 교육·연구에 바빠 좀처럼 시간 내기 힘든 건 알지만, 한번 와 보면 내 집처럼 편하고 좋은 게 동창회 모임이거든요. 등산대회에 산악동아리 학생들을, 테니스대회에 테니스동아리 학생들을 초청해 일찍부터 동문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서울의대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5년 6월 창립한 의대동창회는 총 1만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1500명으로 구성된 미주동창회와 77개 동기회, 90개 지회로 구성된다. 1월 신입회원 환영회, 2월 바둑대회, 3월 정기총회, 4월 테니스대회, 5월 등산대회, 6월 골프대회, 10월 함춘미술전 및 문예전, 12월 함춘송년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경태 기자

생활대동창회

제2회 목련상에 조희금 동문…정혜원 신임회장 취임도

4월 8일 모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락구정에서 열린 생활대동창회 정기총회에 1954학번부터 올해 졸업한 동문까지 165명이 참석했다.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홍형옥)가 4월 8일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 락구정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엔 가정교육학과 54학번 원로부터 올해 2월 갓 졸업한 신입회원까지 165명이 참석했다. 참석 동문들은 가정교육학과,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등 졸업한 학제의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동창회 회원으로서 세대를 초월한 친목을 다졌다.

지난 2년간 홍형옥(가정관리69-73) 회장이 이끈 제30대 생활대동창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하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작년 9월 홈커밍데이

조희금

정혜원

땐 68·78·88·98학번 동문들로부터 총 9770만원의 희망장학기금을 모금했으며, 이번 총회 땐 13명의 재학생에게 총 3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 외 학과별 동창회 지원, 발전기금 고액 출연자들을 위한 '목련클럽'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부턴 생활과학 분야에서 빛나는 공을 세운 동문에게 시상하는 '목련상'을 제정해 운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제2회 목련상 수상자로 조희금(가정관리74-78) 동문을 선정해 시상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조 동문은 대구대 교학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대 명예교수이다. 대한가정학회 회장, 한국가정관리학회 회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 회장의 뒤를 이어 정혜원(의류71-75) 인하대 의류디자인학과 명예교수가 제31대 동창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사대동창회

신정숙·박충모·허현호 동문 청관대상

청관대상 시상식 후 기념사진. 왼쪽부터 우한용 심사위원장, 박충모 학술상 수상자, 허현호 공로상 수상자, 신정숙 사도상 수상자, 이규석 회장. 동문 8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사범대학동창회(회장 이규석)가 4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정기총회 및 청관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규석(지구과학교육66-73) 회장, 변주선(영어교육60-64) 정도교육클럽 5000 추진위원장, 곽병선(교육66-70) 인천대 석좌교수 등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신정숙(화학교육67-71) 전 세종과학고 교장이 청관대상 사도상을, 박충모(생물교육76-83) 모교 명예교수가 학술상을, 허현호(수학교육67-71) 전 한강전자고 교감이 공로상을 받았다.

신정숙 동문은 세종과학고 초대 교장을 역임하는 동안 2007년 당시 건물 골조뿐이었던 학교를 반년 만에 최첨단 시설의 모델학교로 혁신시켰을 뿐 아니라, 2008년 개교 후엔 대학입시 및 국제 올림피아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중학생들에겐 가고 싶은 학교로, 학부모에겐 보내고 싶은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현재 재단법인 경운장학회 이사 및 감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박충모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중등 과학 교사로 봉직하다 뉴욕주립대 생명과학과 박사후연구원, 금호생명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2002년 모교 화학부 교수에 부임했다. 2008년 모교 기초과학연구소 소장, 2015년 모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모교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최신 연구 동향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적극 소개함으로써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했다.

허현호 동문은 학교에서 배운 수학을 학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완전학습교재'와 학습법을 개발, 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영등포구 소재 대영중학교의 개교 요원이자 학생부장으로서 인근 학교와 협력해 영등포 쪽방촌 문제 학생 지도에 진력했다. 모교 수학교육과에 2012년 5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1000만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시상에 앞서 유자효(불어교육68-75) 한국시인협회장이 축시를 낭송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작년도 결산안 및 올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대동창회

동문·재학생, 테니스대회서 땀 흘린 우정

의대동창회 회원친선 테니스대회에 동문과 동문 가족,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의과대학동창회(회장 한규섭)가 4월 16일 연건캠퍼스 의대 테니스코트에서 제41회 회원 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대회에 1936년생 유세영(56-62) 동문부터 재학생 선수 4명까지 총 25명이 출전했다. 최근 취임한 한규섭(72-78) 회장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으며, 동문 가족들이 응원을 나왔다. 김종화(63-69) 동문이 심판위원장을, 재학생 4명이 심판을 맡기도 했다.

챔피언부와 일반부, 실버부와 여성부를 각각 한 조로 묶어 경기를 치른 결과 챔피언부·일반부에선 정춘근(60-67)·이혁표(82-88) 동문 조가, 실버부·여성부에선 최중환(70-76)·위지혜(01-07) 동문 조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재학생 선수로 참가한 양예림(본과2년) 양은 참가 후기에서 "이번 테니스대회를 통해 선배님들과 함께 코트에 서게 돼 영광이었다. 평소라면 뵙지 못할 지고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테니스도 칠 수 있음에 감사했다"며 "경기 순간만큼은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 한마음으로 즐겁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참가 선수와 동창회 임원들은 경기 중간 통삼겹 바베큐와 캔맥주로 넉넉한 오찬을 즐겼으며,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부상으로 상품권을, 참가자 모두에게 참가 선물을 증정했다.

부산지부동창회

"봄에 야외에서 보니 더 좋네"

4월 30일 열린 부산지부동창회 동문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동문과 가족 70여 명이 함께 했다.

부산지부동창회(회장 이상준)가 4월 30일 영산대 해운대캠퍼스 야외 잔디광장에서 동문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10월 열리던 행사였으나 올해는 4월로 시기를 옮겼다.

7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인근 야산을 트레킹하거나 가볍게 족구 등의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신발 던지고 받기 게임 등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문들의 어린 자녀까지 참석해 따스한 날씨 속 봄기운을 만끽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날 이상준 회장이 협찬한 소형와인셀러와 실내자전거 외에 주류, 상품권, 미술작품, 음료 등 동문들이 다양한 협찬품을 지원했다. 또 동창회 상대 동문들이 50만원, 김재창(전자공학64-69) 동문이 10만원을 협찬했다. 참석자들은 행운권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눠 가졌다. 동창회는 앞서 3월 27일 춘계임원회의를 열었다.

화생공동창회

홍창식 신임회장 취임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신우성)가 4월 18일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춘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우성(공업화학76-80) 회장, 이종찬(공업화학85-89) 학부장을 비롯해 동문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홍창식(화학공학79-83·사진) 미원상사 대표이사 회장이 신임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홍 신임회장은 모교 학부 졸업 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0년 동양그룹 중앙연구소 프로젝트 엔지니어, 2001년 미원상사 기술이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현직에 임하고 있다. 2007년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을, 2021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을 겸하고 있다. 2015년 한국공업화학회 대주기술상, 2020년 동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올 2월 정년 퇴임한 김병기(공업화학76-80)·박태현(화학공학77-81) 명예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3월 신규 임용된 교수 4명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ABKI동창회

이덕원 회장 재선임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ABKI)동창회가 4월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2018년에 동창회장을 맡았던 이덕원(5기·사진) 대운 대표이사를 다시 동창회장에 선임했다. 이 신임회장은 2019년 12월 웰에이징시니어산업최고위과정(AWASB)동창회 회장에 뽑혀 동창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이 신임회장이 대표로 재직하는 대운은 방송용 모니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ABKI과정은 모교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9개월 기간의 공개강좌로 2010년 개설됐다.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합리성, 예술적 창의성을 섞은 융복합 지식정보를 집중적인 독서 학습을 통해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알 림

서울대 발전공로상 및 사회봉사상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제16회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품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6월 9일까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교원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국민과 사회의 존경을 받는 교직원과 동문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제13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교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온 모교 교직원, 교직원 단체 또는 동문 개인 및 단체를 6월 16일까지 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인 추천 가능)

모교 기획처 대외협력팀으로 후보 추천서, 추천사유, 공적사항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 화: 02-880-9712
메 일: wingim@snu.ac.kr
주 소: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60동) 3층 기획처 대외협력팀
공고문: 홈페이지(www.snu.ac.kr) > 서울대 소식 > 공지사항 > 일반공지

미대동창회

53학번부터 19학번까지 200여 작가 작품 전시

4월 18일 열린 SNU빌라다르 2023 개막식에서 참여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대동창회(회장 권영걸) 전시회 'SNU빌라다르 2023'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4월 16~25일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 1953학번부터 2019학번까지 200여 명의 동문이 조각·회화·공예 등의 작품을 출품했다.

함께 열린 '제2회 베리타스 미술상전'에선 최근 모교 졸업 전시에서 미대동창회가 선정하는 베리타스미술상을 받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품전도 인기를 끌었다.

4월 18일 열린 개막전에는 권영걸(응용미술69-76) 동창회장과 정의철(산업디자인88-95) 미대 학장, 본회 김종섭 회장, 이경형 상임부회장, 이호갑 평창프로젝트 추진단 팀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 국악과에서 시각디자인을 복수 전공한 박수빈(국악18-23) 동문이 축하 연주를 펼쳤다.

권영걸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동문들 작품은 허튼 것이 없다. 초대 장발 학장님때부터 세워진 아카데미즘 전통이 굳건해서 동문들 작품 전부 구조가 탄탄하다.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학교의 정체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1953학번부터 2019학번까지 70년의 격차가 있는 동문들이 모이는 전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첫 빌라다르전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김종섭 회장은 축사에서 "미대동창회에서 매년 빌라다르전 수익금의 일부를 총동창회에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 권영걸 회장님께선 흩어진 미대 동창회원 6500명을 찾아서 인명록을 만드시는 큰일을 하셨다"며 좌중의 박수를 부탁했다.

김 회장은 또 "기존 졸업생뿐만 아니라 갓 졸업한 학생을 위해서도 이런 행사를 열어주심으로써 이들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도슨트 투어에서는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자들이 직접 작품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

수의대동창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서 이범준 동문 메달리스트

4월 27일 아시아나CC에서 열린 수의대동창회 골프대회 참가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백영옥)가 4월 27일 아시아나CC에서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백영옥(81-88) 회장의 시구로 시작된 이날 골프대회에는 총 8팀이 출전해 함께 땀 흘리며 친목을 다졌다.

저녁 만찬과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범준(78-82) 동문이 77타로 메달리스트를, 윤장원(89-93) 동문이 신페리오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장타상은 김기식(92-98) 동문, 근접상은 모교 이영희 교수에게 돌아갔다.

백 회장은 개회사에서 참석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오늘 대회를 통해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화합을 이루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가을 대회에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바이오노트, 유바이오로직스, 버박코리아, 애능원, 서해농장, 행복한농장 등 동문 기업이 후원금과 시상물품을 협찬했다.

농생대동창회

대체식품 사업 주도할 8번째 법인 추진

4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농생대동창회 AFP 제76차 추진위원회 화상회의 모습.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서병륜) 산하 아그로푸드플랫폼(AFP)이 4월 17일 제76차 추진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AFP테크 및 AFP컨설팅의 추진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정경성(농생물82-88) AFP테크 대표는 용인시 백암면 소재 수박 재배 비닐하우스 3개 동에 이석봉(농공73-80) 동문이 상주하면서 숙련 농부의 농사법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 동마다 6개의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사물인터넷 구축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온도·습도·조도·CO_2 등 150여 개 정보를 감지해 3월 22일부터 1분 단위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본사 컴퓨터에 전송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대(농업교육78-82) AFP컨설팅 부대표는 대체식품 사업을 추진할 가칭 'AFP네오푸드'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식품 분야에서 창업 경험과 육가공 영역에서 사업을 일궈본 적이 있는 이용대 부대표와 농협대학에서 교수로, CJ와 김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식품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한승수(식품공학78-82) 동문이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용곤충(쌍별귀뚜라미 우선)을 필두로 한 1차 사업뿐 아니라 해조류, 미생물, 연두벌레까지 확장하는 2차 사업까지 포함한다. 올해 안에 창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19회 동문 바둑대회

1. 일 시: 2023년 7월 2일 (일) 09:30~17:00
2. 장 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75-1동)
3. 참가인원: 약 200명 (동문, 재학생, 교직원)
4. 진행방법
   - 가. 단체전: 단과대학, 지부별 5명 (후보 1명 추가 가능)
   - 나. 개인전: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 등 편성
   -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대국 방법은 변형스위스 리그로 진행
   - *출전 동문 수에 따라, 조 편성은 융통성 있게 적용
5. 참가비 및 신청방법
   - 참가비: 2만원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신청방법 : 참가를 원하시면 6월 22일(목)까지 참가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jang9869@hanmail.net, 팩스번호 02-703-0755)

문의: 총동창회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종섭

"미중 패권 경쟁 고조될수록 국익 중심 실용외교 펼쳐야 합니다"

수요특강

김현철 (경영81-85)
모교 국제대학원장

미국 최근 5년 간 대중 교역 늘고
독일·프랑스도 중국에 손 내밀어
탈중국 말고 신시장 개척 나서야
참석 동문들에게 강연자 책 선물

"미국 중심의 일극(unipolar) 체제일 땐 미국이 깃발 들면 많은 나라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엔 의외로 동참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동참하는 나라들의 움직임도 옛날과는 다르고요. 4월 초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질 때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도 졸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직후 중국에 가 협력을 강조했고요. 미중 패권 경쟁이 5년쯤 지나자 그 실체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영에 치우치기보단 실리를 우선하는 쪽으로요."

김현철 모교 국제대학원장이 4월 26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본회 수요특강 연단에 섰다. 김 원장은 미국 대 소련, 미국 대 일본, 미국 대 중국 등 글로벌 패권 경쟁이 우리나라와 주변 여러 나라에 끼친 막대한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다. 단일 국가로서 국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신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동맹국들의 탈중국화를 독려하는 미국조차 최근 5년간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외려 늘었습니다. 양국 정부 간 패권 경쟁이 무색하게, 기업 간 협력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보다 공고해지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자국 정부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과 합작해 미국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게 단적인 예죠. 소련과의 냉전 땐, 베를린 장벽이 상징하듯, 양 진영 간 교류·교역이 철저히 가로막혔지만, 지금은 막을 수 없어요. 탈동조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 원장은 냉전 종식 후 30년 동안 경제적 필요에 따라 전 세계가 얽히고설켜, 진영의 논리로 편을 가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가치나 이데올로기보다 실리와 국익을 우선하는 다극(multi-polar) 체제 시대가 됐다는 것.

미국과 유럽이 침략 전쟁을 벌인 러시아에 혹독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인도는 이를 기회로 더 저렴하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와 손잡고 원유 감산을 추진한다. 브라질은 중국과 무역을 강화해 '달러 패권'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독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등지기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일본마저 하야시 외상을 중국에 급파했죠.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부터 중국 내 체포된 일본인 문제까지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지만, 굳은 표정을 짓더라도 중국과 악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기민하게 실용외교를 펼쳐야 해요. 대만 보십시오. 신냉전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역으로 더 힘차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치고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어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고요."

흰수염고래부터 페루부리고래까지 크기 별로 고래의 종류를 스크린에 띄운 김 원장은 한국은 더 이상 새우에 비유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 7위 통상 국가, 수출만 따지면 5위로 올라선다. 고래로 치면 범고래 수준. 엄연히 큰 고래다. 김 원장은 여러 마리가 협동해 더 강한 개체도 사냥하는, 범고래의 특징을 적시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비패권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 및 중국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분열 위기에 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선진국 부유층은 타격이 없겠지만 중위권 및 저개발 국가에 끼친 악영향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매년 1850조원 감소할 것이라 지적했고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현대차를 위시한 우리 기업들이 50조원 투자를 약속했고, 덕분에 중간선거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IRA로 뒤통수를 쳤죠. 자유무역의 가치를 내세워 동맹국의 전열을 다독이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꾀하는 꼴이에요. 이런 판국에 미국에 '몰빵' 해서 우리 국익이 지켜질까요?"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글로벌 패권 경쟁과 그 대응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 청과 영국의 패권 경쟁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켰고,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의 패권 경쟁은 6·25전쟁을 촉발, 남과 북을 갈라놨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은 '경제전쟁'으로 변모해, 일본의 산업과 경제에 대못을 박아 '잃어버린 30년'에 빠져드는 한 요인이 됐다. 일본의 침체는 한국엔 기회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일어섰다.

"1990년대까지 한국의 발전 전략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미일 패권 경쟁에서 일본이 밀리자 독자적 성장 전략을 펼쳤죠.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주저앉히고 자국 내 일본 차 수입 규모를 제한하면서 생긴 빈틈을 공략한 겁니다. 삼성과 현대가 기회를 잘 잡았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패권 경쟁이 고조될수록 특정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분산 경제외교를 해야죠. 유럽·남미·중동도 있지만, 저는 아세안이 가장 유망하다고 봐요. 앞으로 세계 중산층의 절반가량이 탄생할 시장입니다. 물론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주력 시장도 배제해선 안 되고요."

본회는 이날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김 원장의 책 '저성장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증정했다.

나경태 기자

문리대동창회

서울대 밖으로 문 활짝 연 4·19 민주평화상

제4회 수상자에 안성기 배우
"새로운 꿈 안겨준 큰 선물"

문리대동창회(회장 김인규)는 4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4회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안성기 배우에게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을 수여했다.

안성기 배우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국제구호기금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봉사 및 구호 활동을 이어왔다. 평소 인권보호 및 인류애를 실천해온 행보와 더불어 2011년부터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공익사업을 이끌어온 공로 등을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성기 배우는 수상 소감에서 "저는 다섯 살부터 일생을 바친 직업이 영화배우. 그런데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간이 된 4·19 혁명정신을 기리며 제정된 4·19 민주평화상 수상자로 저를 선정해 주신 데는 무엇보다 어려운 용단이 따랐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왼쪽부터 김인규 문리대 동창회장, 안성기 수상자, 김종섭 총동창회장.

그러면서 "제게 주신 이 큰 상은 새로운 꿈을 갖도록 기운을 안겨준 소중하고 영예로운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제 삶에서 열정을 다해 제 작은 힘이지만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신명을 바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안성기 배우는 비 서울대 출신, 첫 문화계 출신 수상자로 의미가 깊다.

2회 수상자였던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상의 외연이 넓어져 좋다"고 했으며,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은 "4·19민주평화상이 세계적인 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4·19 민주평화상은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문리대동창회장 시절 기부를 통해 제정한 상으로, 민주주의 정착 및 사회정의, 평화 구현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매년 시상해왔다. 1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2회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 3회 김영란 전 대법관이 수상한 바 있다. 조각품 상패는 최인수 모교 명예교수가 제작했다.

이날 김인규 문리대동창회장을 비롯해 김종섭 총동창회장, 유홍림 모교 총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신영균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 등 동문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남찬순 4·19 민주평화상 운영위원장, 권숙인 심사위원장, 조순용 문리대동창회 부회장 등이 행사를 위해 수고했다.

김남주 기자

대학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새내기 기자들 60년 선배 만난 날

1960년대 대학신문 기자들과 재학생 기자들이 4월 3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교 대학신문이 창간 70주년을 맞아 4월 3일 원로 퇴임기자와 현직기자가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로 퇴임기자 5인과 현직기자 32인은 교내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학신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 후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 원로기자로 1960년대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퇴임기자 모임 '함춘프레스60club'의 유장희(경제59-63) 전 이화여대 부총장, 이정민(영문59-63) 모교 명예교수, 김덕형(행정62-66) 조선일보 대기자, 임효빈(화학공학61-65) 전 대우그룹 부회장, 양만기(경영64-68) 전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했다.

대학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후 1970년대 활동 퇴임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5월), 1980년대 이후 활동 퇴임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8월) 간담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 외에도 대학신문은 2023년 창간 70주년을 맞이해 10월 홈커밍데이를 비롯해 선후배 간담회,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70주년 기념 행사는 2022년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학과, 동기회, 동호회 등 소모임 소식을 사진과 함께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news@snua.or.kr

동문 서비스1 :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 고
	서 울	경 주	지리산	설악산	
객 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 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 고
객 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 원/일)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055-530-8100)
- 예다함상조 :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1566-6644)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앰배서더 호텔 그룹

구 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앰배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앰배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90000	110000	125000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2000	95000	120000	135000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4000	105000	130000	145000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0000	180000	220000	25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3년: 1/20~1/23, 4/28~5/1, 5/4~5/7, 6/2~6/5, 7/21~8/19, 9/27~10/2, 10/6~10/8, 12/22~12/24, 12/29~2024년 1/1			

※ 세금, 봉사료 포함가,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63-441-8000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

구 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 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 실 : 성·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43-653-2013, www.skyp.co.kr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 **램스에비뉴 (양고기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음료 제외)
※ 예약 및 문의 : 02-303-898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결혼정보업체 듀오 10% 할인

●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 1577-8333

동문 서비스2 :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제천 명지병원 인천사랑병원	031-810-6383 043-640-8450/8451 032-457-2800	건강검진 20~30% 우대 비급여진료 10% 우대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움건진센터	삼성	1800-7750(내선1번)	35·50만원
	청담차움(프리미엄)	02-3015-5001	80·100·150·200만원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 경조 서비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 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80000원	80000원		

● 신 청 _ 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 전화 02-702-2233

● 입 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배 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Mall SNUA에 모교 기념품 입점

본회 동문 전용 온라인 쇼핑몰 Mall SNUA에 '서울대 로고 기념품' 상품을 독점 취급하는 모교 생활협동조합 상품이 입점했다. 여러 동문들의 입점 요청에 힘입어 이뤄져 서울대 출신의 자부심을 일깨워줄 기념품을 더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가입비 제도를 없앤 Mall SNUA는 6개월이 지난 현재 회원 수 7300명을 넘어섰으며, 3600여 개의 상품이 입점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동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으로 △계절상품 중 특별공급하고 있는 무풍 에어컨 △주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최고 '알레르망' 침구 △벨기에 수입 천연세제 '에코버' △우수 중소기업 인정받은 다림질 필요 없는 '어반트' 셔츠 △두피에 순한 자연성분 새치염색샴푸 등이 있다.

Mall SNUA는 그 운영 목적이 이윤이 아닌 동문 간 활발한 교류에 있는 만큼 동문 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폐쇄몰의 장점을 십분 살리는 까닭에 공급자 입장에서 다른 유통 채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Mall SNUA는 동문 기업을 비롯해 우수 기업의 상품 입점을 받고 있다. 문의: 02-336-9194

6~8월 행사 안내

행사 문의 : 02-702-2233

조찬포럼
일 시 : 6월 8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주 제 : 한국 노동 현실과 법치주의 노동 개혁
참가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수요특강
일 시 : 6월 28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주 제 : 최초의 질문 – 기술선진국의 조건
참가비 :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6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등산대회
일 시 : 6월 29일(목) 오전 10시
산행지 : 청계산
집합장소 : 양재역 서초 08번 버스 추모공원 입구
참가비 : 2만원(오찬 제공)

바둑대회
일 시 : 7월 2일 (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 (75-1동)
참가비 : 2만원

수요특강
일 시 : 8월 23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참가비 : 2만원
*8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기부자 동문 초청 골프대회
일 시 : 8월 28일 (월) 오후 1시 (예정)
장 소 : 렉스필드 CC (경기도 곤지암)
참가대상 : 동창회 임원 및 기부자

등산대회
일 시 : 8월 하순
산행지 : 미정

북·중·러 유발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할 때

국가미래전략원 보고서 발간 모교 홈페이지서 볼 수 있어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서로 연계돼 있다. 가능성이 작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2~3년 내 대한민국이 당면할 수 있는 지정학 리스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모교에서 나왔다. 4월 10일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이 발간한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地政經) 리스크: 평가와 대응' 보고서다.

보고서는 "지정학과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사건의 영향 및 국가 간 파급효과가 훨씬 커진 지정경(地政經)의 시대"라며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지정학과 연결된 세계 경제 문제의 엄중함, 복합성을 인식시키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시나리오 분석기법에 따라 미국발 도전요인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일본에 대한 분석은 진행 중인 현안의 해결 동향에 따라 가변성이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대중(對中) 전략적 관여에 따라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나타난 한국과의 전기차 갈등처럼 동맹국과 경제 이익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책까지 여력을 쏟으면 미국이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미국 내 양극화된 정치 구도에 따른 외교 정책 변화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2~3년 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이 일어날 가능성은 5%로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한다면 △국제자본 통제 강화 △해외 중국 자본에 대한 신속한 청산 △긴급 물자(의약품, 기술 부품 등) 비축 급증 △주요 수출품(미네랄, 석유, 식품 등) 수출 중단 △주요 수입품(석유, 가스 등)에 대한 수요·배급 제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엘리트 정치 리스크 △사회경제 리스크 △외교안보 리스크 등이 병존한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영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은 내·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과장된 체제 위기 의식과 안보담론을 확대하면서 공산당 엘리트의 단합과 분투 의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변국가에는 영향력 공작을 시도하고, 미국에 대해선 '투쟁은 하되 파국은 피한다(鬪而不破)'는 노선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는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향후 2~3년간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인 내구력이 약화된다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진이 평가한 확률은 10%지만 파급효과는 그 이상일 수 있다. 미국과 서방이 핵전쟁의 확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북·중·러가 보조를 맞춰 대응한다면 한반도도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실각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연구진이 검토한 최악의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 리스크다. 머지않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확률을 35%로 평가했다. 올해 내로 도발을 감행할 확률은 20%지만,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과 내후년엔 5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전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한다면 북핵 문제가 일으키는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억제 △제재 △경제개발 △평화체제 △지식공유의 다섯 축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북한 비핵화 단계에 따라 패키지를 만들어 제시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해답이자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핵실험에 따른 북·중 국경지역 환경오염 등 중국 이해에 직결되는 부분을 제기해 국익 차원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금융시스템마저 흔들리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미국에서 15년 만에 뱅크런 현상으로 실리콘밸리은행 등 대형 지역은행 3곳이 연쇄 파산했고, 이러한 불안이 전이된 유럽에선 크레딧 스위스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돌이 세계 경제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목도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만일 글로벌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이라 양적 완화 등 무제한적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자주 하고,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취하는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의 지속가능 여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발생확률은 낮지만 파급효과가 큰 '꼬리 위험(tail risk)'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는 중장기 정책연구를 수행 중인 전략원의 6개 연구 클러스터와 별개로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했다. 모교 각 전공 분야 교수들과 김병연 원장, 손인주 부원장, 전재성 모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형진 책임연구원(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안도걸 책임연구원(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전직 외교 경제 분야 고위공무원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모교 홈페이지(snu.ac.kr) '서울대 소식〉보도자료'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정원 218명 첨단융합학부 신설…30년 만에 증원

2024학년도 입시부터 모교에 218명 규모의 첨단융합학부가 신설된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디지털헬스케어 △지속가능기술 등 4개 전공을 포함하는 학부다. 모교 학부 입학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초 이후 30여 년만의 일이다.

앞서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부 신·증설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모교는 교육부에 330명 정원의 첨단융합학부 신설을 신청하고 새 학부 설립안을 제출했다. 4월 27일 교육부의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따라 모교 첨단융합학부 신설과 정원 218명 증원이 확정됐다. 모교를 포함해 전국 대학에서 반도체·로봇·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이 1829명 순증했다. 수도권 대학 중 모교의 정원 순증 인원이 가장 많았다.

첨단융합학부 학생들은 1~2학년 동안 교양과 4개 전공의 개론 수업을 받은 뒤 3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점에선 자유전공학부와 같지만, 전공 제한이 있다는 점에선 다르다. 교육 과정에는 공대 교수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대 교수진도 참여할 예정이다.

모교는 이러한 첨단융합학부를 새로운 학부 교육을 도입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유홍림 모교 총장은 5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첨단융합학부는 자유전공학부와 유사하게 전공을 정하지 않고 신입생을 뽑겠다"며 "첨단융합학부에서 1~2학년 동안 배우는 교과과정을 앞으로 전 학생에게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은 변경한 입학전형시행계획에 근거해 5월 말까지 새로운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모교 또한 촉박한 기간 내 신설 학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전공 분야가 밀접한 공과대학에선 학생회가 교무처와 면담을 통해 △첨단융합학부는 공대 산하가 아닌 별개의 학부기초대학 소속 학부로 설립된다는 점 △첨단융합학부에서 공대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학생들 주려 사과즙 2000개 싣고 온 명예교수

모교 명예교수가 모교 '천원의 식사'에 직접 만든 사과즙을 기부했다.

최근 모교의 한 명예교수가 학생들을 위해 직접 농사 지어 만든 사과즙 2000개를 모교 '천원의 식사'에 지원했다. 강단을 떠난 후에도 지극한 제자 사랑을 보여준 미담이 알려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대학가에서 1000원에 학생식당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식사'가 화제다. 퇴임 후 지방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던 해당 명예교수는 이 소식을 접하고 4월 19일 모교를 방문해 손수 농사지은 사과로 착즙한 사과즙을 전달했다. 직접 차량을 몰고 온 그는 "소소하지만 좋은 뜻이 이후 많은 동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을 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극구 사양했다.

모교는 기부 받은 사과즙을 학생회관 식당에서 운영하는 '천원의 식사' 메뉴에 포함해 2000여 명의 학생에게 제공했다. 모교는 2015년 아침 시간대에 '천원의 식사'를 시작해 현재 점심, 저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모교 관계자는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업과 대학생활에 큰 격려로 이어지고, 건강한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에 '학폭' 반영 모교 포함 21개교로 확대

2023학년도 입시 기준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학은 모교를 포함해 5곳이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모교를 포함해 21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학폭 조치사항을 자율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모교와 고려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21개교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모교를 포함한 총 112개교가 학폭 조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모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학폭조치 사항을 반영해오고 있다.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최대 2점을 감점해왔다.

정시모집 입시 요강에도 '학내·외 징계 여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모교는 교육부, 대학입학처장협의회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감점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기금 소식

김광일 동문 경영대에 총 10억원 쾌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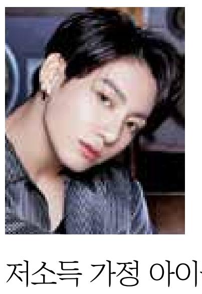
김광일(경영84-89·사진) MBK파트너스 대표가 4월 18일 '덕송장학금'과 경영대 'SNU BIZ 창업기금' 4억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이로써 김 동문이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총 10억원에 이른다.

김 동문은 1992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 사모펀드 기업 MBK파트너스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대표로서 기업 바이아웃 M&A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 동문은 2009년 은사 곽수근(경영73-77) 전 경영대 학장과 '덕송장학금'을 조성하고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다.

김 동문은 "학창 시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기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덕송장학금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돈의 역할뿐 아니라 공부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는 의미와 마음도 같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영대 재학생과 동문의 창업을 지원하는 SNU BIZ 창업기금에 대해선 "경영대 후배들이 창업에 대한 도전과 기업자 정신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TS 정국, 어린이병원에 10억원 기부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사진)이 4월 14일 모교 어린이병원에 10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치료비와 통합케어센터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모교 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는 오랜 입원 생활로 성장기에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는 환아와 이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병원학교와 꿈틀꽃씨 쉼터를 운영하며 교과학습과 교육, 상담, 정서치료 및 지지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측은 "운영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인 어린이병원의 입장에서, 통합케어센터 사업들은 일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후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기꺼이 내민 손은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동아리 탐방 | 로켓동아리 '하나로'

"선배님들 로켓 쏠 수 있는 넓은 땅 어디 없나요?"

로켓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6월 국제대회, 총동창회 지원

(위)2019년 아마추어 로켓대회 SACup에 참가한 하나로. (아래) 하나로 로켓 발사시험 장면.

"5, 4, 3, 2, 1!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

땅을 박차고 솟아오른 로켓이 호쾌하게 하늘을 갈랐다. 2019년 6월 21일 국제 과학로켓 대회 SA Cup(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컵)이 열린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지대. 모교 로켓동아리 '하나로' 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극마크와 서울대 마크를 단 로켓 'HALO'가 최고고도 4800ft(1.5km)까지 날아올랐다. 단 몇 초였지만 이들에게 잊지 못할 희열을 안긴 날이었다.

오는 6월 하나로는 또 한 번 SA Cup에 도전한다. 세계 14개국에서 대학 159개 팀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의 유일한 동아시아 참가팀이다. 본회에서 경비 1000만원을 지원했다. 참가자 11명이 소요하는 비용의 1/3 정도다. 5월 2일 학내 카페에서 만난 조용현(기계항공공학17입) 하나로 회장은 "한국에서 로켓을 제작하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막막했는데 총동창회 지원 덕분에 고비를 넘겼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새내기 부원 서지완(항공우주공학23입) 씨가 동석했다.

조 회장이 노트북으로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다. "예쁘죠? 로켓의 궤적이에요. 발사 후 최고점을 찍고 낙하산을 펼치는 과정인데 고도 307m까지 올라갔어요." 이 포물선 하나를 얻기 위해 비좁은 동아리방에서 땜질을 하고 꼴딱 밤을 샌다. 그래도 즐거워만 보이는 이들은 1998년 설립한 모교 유일의 로켓 동아리 하나로다. 현재 69명이 활동하면서 로켓 설계, 개발, 실험, 제작, 발사까지 전 과정을 다룬다. SA Cup에는 올해 두 번째 출전. 24.9kg 무게 로켓을 1만ft(약 3km) 고도까지 쏘아올린 뒤, 최고고도에서 낙하산을 펼치고 8.81lb(약 4kg)의 페이로드(위성체)를 공중에서 사출해 영상 촬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목표로 개발에 한창이다.

부원 대부분 항공우주공학 전공자고 간혹 타 전공자도 들어온다. "누리호 발사 후 지난 학기에 가입이 확 늘었어요. 나로호 때 관심이 생긴 선배, 동기도 있고요." 조 회장은 2012년 우주선 '큐리오시티'의 화성 착륙을 보고 우주선과 로켓에 매료됐다. 서지완씨는 "이소연씨가 소유즈 호를 타고 우주에 가는 걸 본 후 우주비행사를 꿈꿨다. 2018년 누리호 시험 발사 때 2021년에 제대로 준비해 쏜다는 얘길 듣고 비전이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올해는 입학 전부터 신입생 톡방에 동아리를 홍보하고 부원을 모았어요. 개강 전에 로켓 쏘는 걸 꼭 보여주려고요. 로켓을 날리기 전 로켓엔진 지상실험을 했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엔진으로 다시 시도했지만 연료 제작 중 사소한 이유로 연료가 빠지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 못 했죠. 누리호를 보셔서 알겠지만 로켓, 항공우주 쪽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사고 나면 복구하고, 이유 알아보고…. 저희 동아리 활동이 규모는 달라도 국가 항공우주 산업의 축소판 같아요."(조용현)

지난 SA Cup 출전을 위해 개발한 로켓 HALO는 M class 모터(총 충격량 5120-10240 N·sec)를 사용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지만 최고 고도를 날면서 분해돼 'shred' 판정을 받았다. 지난 경험을 발판으로 부원들이 로켓에 적합한 유리섬유 등 소재를 수소문해 구하고 연료까지 직접 만들며 준비하고 있다. 하나로의 지난 개발 일지를 보면 아예 '발사에 실패했다'는 기록도 적지 않다. '공들여 만들었는데 잘 안되면 슬프지 않냐'는 질문에 이들은 "실패할 걸 알아도 로켓을 날려봐야 얻는 게 있다"고 했다.

"얼마 전 스페이스엑스의 우주선 스타십이 폭발했을 때 직원들은 오히려 박수를 쳤죠. 발사에 실패해도 데이터는 남고, 그렇게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아기에게 '손발을 이렇게 하면 달릴 수 있다'고 알려줘도, 실제론 넘어지게 되잖아요. 로켓을 날리는 건 그 첫 걸음마를 지켜보는 기분이에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배우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행복하죠."(서지완)

이렇게 한 번의 발사 경험이 귀중한데 국내에선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넓던 하늘이 로켓만 쏘려면 좁아진다. "군부대가 많은 국내 특성상 450m 이상 날리려고 하면 항공청에 공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사실상 300m 쏘는 것도 어렵고 그나마도 쏠 곳이 없습니다. SA Cup의 목표 고도가 1만ft인데, 한 번도 실험해보지 못한 고도를 현지에서 도달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게 부지를 찾았는데 사용 못하게 돼서, 밤새 만든 로켓을 싣고 갔다가 그대로 돌아온 적도 있죠. 발사가 잘 안 될 때보다 그럴 때 더 서러워요."

서울대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심지어 하나로 부원인데도 때가 안 맞으면 로켓 한 번 못 날려보고 졸업하는 학생이 많다는 말은 놀랍기까지 했다.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NURA)에서 매년 여름 전남 고흥항공센터를 빌려 여는 로켓 경진대회가 대부분 대학 로켓 동아리에는 유일한 기회다.

"1년에 한 번밖에 쏠 수 없으니 우리나라 로켓동아리 발전에 한계가 있죠. 마음껏 로켓을 쏘고, 낙하산이 안 펴져서 땅에 꽂히고, 박혀도 안전할 정도로 넓고 탁 트인 부지만 있다면 좋을 텐데…. 혹시 신문을 읽으시는 선배님들 중에 넓은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저희에겐 로켓을 쏠 수 있는 땅이 정말 간절합니다."

졸업 후 항공우주 분야에 진출한 선배가 많지만 동아리와 계속 연락하는 경우는 적다고 했다. 대신 치밀하고 복잡한 로켓 제작은 거의 도제식으로 이뤄져 활동할 때 선배의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이 많다. 올해 6년째 활동 중인 조 회장도 하나라도 더 경험과 지식을 남겨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득했다. "10번 이상 로켓을 쏴봤지만 확실한 건, 로켓 쏘는 건 언제 봐도 질리지 않아요. 발사하면 어떤 데이터든 남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희열이 있어요. 선배님들의 지원 덕분에 이번 대회 출전이 가능했듯이, 저희도 로켓을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오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후원 문의: http://hanaro.snu.ac.kr

모교 단신

K-MOOC에 반도체 등 온라인강의 제공

모교는 최근 교육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K-MOOC) 선도대학 15개교에 선정됐다. 선도대학은 향후 3년간 매년 4개 이상의 특성화 분야 강좌를 개발해 공개하게 된다. 2015년에도 K-MOOC에 참여한 모교는 반도체와 로봇 등 신산업 분야 강좌를 새롭게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강좌는 오는 9월부터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서 무료 수강할 수 있다.

지구심부-지표 상호작용 연구센터 개소

모교 지구심부-지표 상호작용 연구센터(센터장 김영희)가 최근 개소했다. 센터는 지구의 진화에서 지구심부와 지표 프로세스가 상호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쌍방향적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일대의 지질 재해 대응, 우주 탐사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9명과 석박사급 대학원생, 연구원 등 80여 명이 참여하고, 한국연구재단이 7년간 약 84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학생증 디자인 15년 만에 변경

모교 학생증 'S-card' 디자인이 15년 만에 변경된다(사진). 앞서 총학생회와 학생지원과는 학내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디자인에 대해 S-card 디자인 심의 위원회의 심사와 학내 구성원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내년 3월부터 학생증에 사용될 대상 수상작은 '조국의 미래, 서울대'를 주제로 모교 정장과 교명, 태극기 문양인 건곤감리를 배치해 "서울대가 조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며, 그 중심에 서울대 구성원들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대, 3년 만 학부모 초청 행사

자연대(학장 유재준)는 4월 1일 관악캠퍼스 자연대에서 학부모 초청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자연대 7개 학부의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활 안내 △자녀들의 대학생활 이야기 듣기 △질의응답 △학교시설 투어 등을 진행했다. 자연대는 2015년부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이같은 행사를 열고 있다.

챗GPT 활용 반도체 설계 강의 신설

모교 전기정보공학부(학부장 이혁재)가 오는 2학기 챗GPT를 활용한 반도체 회로 설계 강의 개설을 추진한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강의는 챗GPT의 코딩 작성 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임종우 교수팀 화재 강한 배터리 기술 개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안정성과 성능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모교 연구진이 개발했다. 임종우(사진) 모교 화학부 교수팀은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해 안정적인 구동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 폭발과 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주목받는 연구다.

전고체 배터리는 내부에 전해액 대신 불연성의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안전성이 높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시간도 짧다. 기존의 흑연 음극을 대신해 리튬 금속 음극과 안전하고 친환경적·경제적이기까지 한 실리콘 음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에서 실리콘 분말 전극은 입자 간의 공극(틈)이 있어 리튬 이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는 안정적인 구동을 저해하고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됐다.

임종우 교수 연구팀은 실리콘 분말 전극 대신 실리콘 웨이퍼 전극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실리콘 웨이퍼를 전극에 적용하면 공극이 없어 리튬의 이동이 용이하고, 부피당 밀도가 가장 높은 구조로 배터리의 고에너지 밀도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 전지 노화를 일으키는 전해액과의 부반응의 위험도 없다. 연구팀은 실리콘 웨이퍼를 습식 식각해 표면 거칠기를 조절함으로써 웨이퍼와 고체 전해질을 밀착시키고, 실리콘 웨이퍼 음극재에 리튬이온이 불균형하게 들어가 계면이 들뜨는 현상도 방지했다. 이렇게 개발한 배터리로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2~3배 크기 용량을 달성했고, 상온에서 100회 이상 안정적인 충전과 방전에 성공했다.

논문 제1 저자인 나익천 연구원은 "해당 논문은 여태까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100% 실리콘만을 포함하는 전극을 전고체 배터리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적용해 실현한 최초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본 연구 성과는 3월 27일 국제학술지 ACS 에너지 레터스에 발표했다.

'야구하러 시흥캠퍼스 가자' 야외체육시설 준공

모교 시흥캠퍼스에 3만6000㎡ 규모의 야외 체육시설이 들어섰다.

모교는 4월 27일 유홍림 모교 총장,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캠퍼스 야구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4월 27일 준공한 시흥캠퍼스 야구장에서 유홍림 모교 총장(왼쪽 두 번째)이 시구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옆에 들어선 야외 체육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2면), 테니스장(6면)을 갖췄다. 몇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모교는 2026년까지 수영장, 실내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약 7900㎡ 규모의 배곧체육관(가칭)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은 모교가 구상하는 시흥캠퍼스 2차 조성 단계에 해당한다. 향후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및 시흥서울대치과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기회의 땅 라오스, 봉사활동이 첫걸음 되길 바랍니다"

이재원 (대학원15-18)
밀크포라오·그린굿스 대표

NGO에서 출발, 양계사업 발전 현지 농가 소득 증대 도와

오는 8월 동문들이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라오스 SNU공헌단에 합류한다. 라오스는 2015년부터 모교가 봉사를 지속해온 곳. 그에 앞서 현지 소셜 벤처의 성공 사례를 쓰고 공헌단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온 동문이 있다. 이재원 밀크포라오 대표 겸 그린굿스 대표다.

그린굿스는 라오스 현지 농가와 협업해 양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신은 2015년 모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동아리에서 출발한 NGO 밀크포라오. 라오스 아동에게 우유를 보급해 영양 상태를 개선한다는 꿈을, 농축산업 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라는 목표로 전환하면서 차린 회사다. 최근 아태 지역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런티어가 투자를 결정했다. 5월 3일 송도에서 ADB 연차총회 참석차 귀국한 그를 만났다.

"내륙 지역인 라오스는 저렴한 수입 농산물이 침범할 여지가 많아요. 양계 분야도 태국 대기업이 진출해 종자며 사료를 독식해서 자본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대기업도 닭고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기르기는 어려워도 맛이 좋은 프리미엄 토종닭으로 이미지를 구축했죠."

그린굿스는 라오스에서 토종닭을 가장 많이 보유한 양계 기업이다. 라오스 농림부와 함께 토종 산란계 품종을 개발, 그 닭에서 얻은 알을 부화시키고 백신까지 맞춰 기른 병아리를 소규모 양계 농가에 보급한다. 필요하면 닭장도 지어주고 사료도 제공한다. 75일 후엔 농가에서 키운 닭을 사료 값만 제하고 모두 사들여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250마리 규모 닭장 하나로 한 달간 얻는 소득이 100달러 정도. 쌀농사로 먹고살며 닭이라야 뜰에서 열몇마리 키우던 소농들엔 쏠쏠한 부수입이다. "한국 토종닭처럼 현지 토종닭도 긴 다리에 살이 붙은 형태로, 치킨보다 구이를 선호하는 현지인, 외국인 고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요. 방사형으로 키운 토종닭으로, 품종을 보전하는 의미도 있죠. 현재 비엔티안 시내에서 유통되는 토종닭 중 7% 정도 점유율인데 20~30%까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계 농가도 23곳에서 300농가까지 계약을 늘릴 예정입니다. 가격 변동을 고려해 출하 스케줄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어요."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인 직원 5명, 현지인 2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여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모교 공헌단 활동도 주관한다. 잠깐 왔다 가는 이들을 맞이하는 일이 번거로울 법한데 오히려 "성장 동력이 됐다"고 했다. "세 번 넘게 온 학생이 있었어요. 저희에겐 큰 도전이었죠. 6개월마다 자신이 해둔 게 잘 남아 있는지 보러 오니 저희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킬 책임이 생기더라고요. 봉사했던 친구들이 '취업 자소서에 봉사활동 얘기 많이 썼다'고 하면 정말 고마웠어요."

공헌팀을 꾸릴 땐 모교 학생과 같은 비율로 라오스 국립농대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다른 봉사활동을 보면서 현지 학생 소수를 통역으로만 쓰는 게 아쉬웠어요. 한국 학생과 현지 학생을 절반씩 섞으면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아닌 친구가 돼요. 친구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현지 농가에도 겸손하게 잘 대하게 되고요. 현지 학생 중 똘똘한 친구는 눈여겨 봤다가 입사 제안도 하죠."

그는 틈만 나면 청년들에게 말한다. "라오스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다. 와서 기회를 잡아라". 자신이 돈을 버는 이유도 "청년들을 데려와 봉사활동을 하고, 미약하게나마 개발 협력이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싶어서"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아보여서인지 다들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발전된 모델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창업지원서를 정말 많이 썼어요. 개도국에서 창업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떨어졌죠. 결국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과 결혼 자금까지 개인 돈 1억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돈으로 농업 창업하려면 턱도 없지만 현장에선 훨씬 작은 돈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지원금 받는 데 집중하기보다 우선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봤으면 해요."

라오스는 그에게 가족의 나라이기도 하다. 대학시절 라오스에서 봉사활동 중에 현지 대사관 직원인 아내를 만났고, 오랜 국제연애 끝에 결혼해 두 살배기 딸을 두고 있다. 아이가 자랄수록 라오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도 커진다. 양계 농가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했고, 한국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 숲을 조성하고 있다. 현지 심장병 환아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도록 후원하기도 했다.

그를 매개로 라오스와 모교의 인연도 깊어져 간다. 6월부터 모교와 라오스 국립 농대 축산학과가 협력해 우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 코디네이터로 그린굿스가 참여한다. 라오스에 우유를 보급하겠다는 밀크포라오의 꿈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 같다. 평창 산학협력단엔 그린굿스의 한국 법인이 입주를 앞뒀다. "평창캠퍼스 1기여서 애착이 커요. 당시 교수님이 20분인데 학생은 7명이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죠(웃음).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었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직원들도 유학 보내고 싶어요."

어려웠던 창업 초기, 코이카 프로그램으로 수주한 양계 사업의 위탁 운영을 맡겨 지금 사업의 토대를 다지게 해준 농업 NGO 굿파머스 장경국(축산65-69) 회장에겐 감사한 마음뿐이다. '기초 농산업 발전은 시간이 들어도 꼭 필요한 것이니 자부심 갖고 일하라'고 격려해 준 덕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공헌단에 합류하는 동문들에게 그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믿고 바라봐주는 마음'이다. "무수히 많은 전문가와 봉사단이 개도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왔다가 원하는 대로 성장이 안 돼서 서운해 하며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일사천리로 바뀌길 기대하기보다 이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 주셨으면 해요. 현지 주민들과 좋은 경험을 만들고, 인연을 키워 나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박수진 기자

"4수 끝에 오른 프로 무대, 우선 목표는 살아남기"

유준하 (체육교육20입)
경남FC 프로 축구선수

여섯 번째 서울대 출신 프로 선수 먼 훗날 프로 은퇴 후 복학 희망

"축구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하이라이트 장면이 적습니다. 100골도 심심치 않게 터지는 농구, 몇십 점은 우습게 넘기는 배구나 야구에 비해 축구는 골이 매우 적게 나와요. 그만큼 한 골 한 골의 가치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 한 골을 위해 경기장에서 뛰는 22명의 선수들과 수많은 코칭·스태프들의 노력을 잘 알기에, 골을 넣었을 때나 막았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모교 체육교육학과 20학번 유준하 선수가 말하는 축구의 매력이다. 전공을 살려 체육 교사가 될 수도, 서울대 학벌로 더 안정된 직업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프로 축구선수라는 오랜 꿈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 시즌 경남FC에 입단, 지난 4월 2일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한 그는 1988년 황보관(체육교육84-88), 1989년 양익전(체육교육85-90), 1991년 이현석(체육교육87-91), 2017년 이건엽(체육교육13-21)·이정원(체육교육13-18) 동문에 이어 프로 무대에 오른 서울대 출신 축구선수가 됐다. 경기 등으로 바쁜 유준하 선수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데뷔 전 주 2군 연습경기 때 골을 넣었습니다. 데뷔 2일 전 있었던 FA컵 2라운드에선 선발로 경기를 치렀고요. 골은 못 넣었지만, 팀이 이겼고 활약도 나쁘지 않아 '혹시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경기 전날 코치님이 내일 선발 출전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데뷔 당일엔 동료들이 긴장했냐고 놀려 외려 긴장을 풀어줬고 컨디션도 무척 좋았습니다. 상대 팀의 첫 홈 개막전이어서 관중이 많았어요. 군악대도 있었고요. 좀 어수선했지만, 꿈을 이뤄냈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유 선수는 10세 때 우연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모습이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의 눈에 띄어 축구를 시작했다. 공격수로 일찌감치 두각을 드러내 강원FC의 유스팀인 주문진중학교에 스카우트됐고, 강릉중앙고 2학년 땐 2018 금강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프로의 벽은 높았다. 고교 졸업 때까지 영입 제안을 못 받았다. 좌절감이 컸지만 동시에 서울대 입학이란 기회를 얻었다. 고3 6월, 대학입시를 치르기로 마음먹은 지 반년여 만에 거둔 성과다.

"수시 전형엔 수능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특성화고 재학 중이어서 내신을 따기가 비교적 수월했고요. 축구부 내에서 매년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준비하는 형들이 있어 조언도 많이 구했죠. 축구를 비롯해 엘리트 청소년 선수들이 대학 진학을 하려면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철하게 자기 실력과 가능성을 분석해 당장은 프로 진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전형을 살펴 거기에 맞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해요. 시간 관리가 중요하죠. 계획을 잘 짜야 하고요."

다수의 입상실적과 전국대회 우승 등에 힘입어 모교 입시엔 '현역'으로 붙었다. 그러나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기까진 '4수'의 시간이 필요했다. 2020학번 새내기 시절은 부상과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고, 2021년엔 관악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리는 노원까지 오가며 아마추어 리그 팀에서 훈련했다.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6골 1도움을 기록해 몇 군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으나 테스트

에서 떨어졌다. 실력이 부족해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아픔은 축구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딱 1년만 더 해보자는 심정으로 지난해 휴학계를 냈습니다. 4부 리그 27경기에 출전해 7골 2도움으로 영플레이어상을 받았죠. 축구 할 때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재밌습니다. 돌아보면 축구가 주는 기쁨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때의 고통도 견디게 해줬던 것 같아요. 축구화, 노트북, 수업 자료에, 땀에 전 운동복까지 상당한 무게의 짐을 메고 다녔죠. 지금은 클럽하우스에 거주하며 식사, 빨래, 청소는 물론 물리치료까지 좋은 플레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걸어서 2분 거리고, 웨이트 훈련장이 숙소 내에 있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확연한 차이를 느끼고 있어요."

대우만큼 실력의 차이도 확연한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 선수로서 유준하는 즐거움보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러나, 꿈꾸던 무대에 오른 만큼 여기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목표와 도전의식이 샘 솟는다고. 프로 리그에 자리 잡아 즐거운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롤모델로는 안정환과 네이마르를 꼽았다.

"드리블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네이마르는 패스와 킥, 경기 조율 능력도 훌륭해 경기 전체에 관여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모습이 멋집니다. 안정환 선수는 수비가 붙었을 때 동료를 이용할 때와 기술로 상대를 제치고 나가야 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선수고요. 이전의 한국 선수들이 스피드를 이용해 수비를 제치는 '돌파형'이었다면, 안 선수는 기술과 방향전환으로 떨쳐내는 '지능형'이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꼽은 축구선수로서의 장점은 드리블과 볼 터치 등 축구 센스. 부족한 점은 피지컬과 체력이다. 아침 8시에 일어나 8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10시부터 2시간 30분 정도 단체훈련을 한다. 점심식사 후엔 치료실에서 1시간 정도 마사지를 받고, 오후엔 피지컬 코치와 함께 1시간 정도 개인 웨이트 훈련을 한다. 저녁 식사 후엔 주로 영어 공부나 드라마 시청, 게임 등을 하고 10시 30분쯤 잠자리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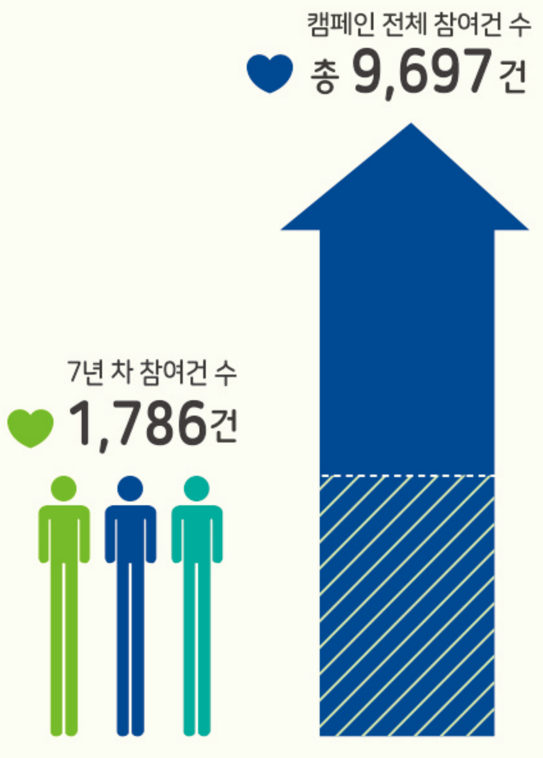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서울대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는 프로 무대에서 살아남는 것이기에 먼 훗날 은퇴하면 재입학 등 방도를 찾아 남은 학업을 마치고 싶어요." 나경태 기자

만만한 기부, 일곱 번째 이야기

서울대학교 대표 모금 사업으로 자리 잡은 '만만한 기부'가 벌써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만만한 기부 기부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월 생활비를 제공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생활비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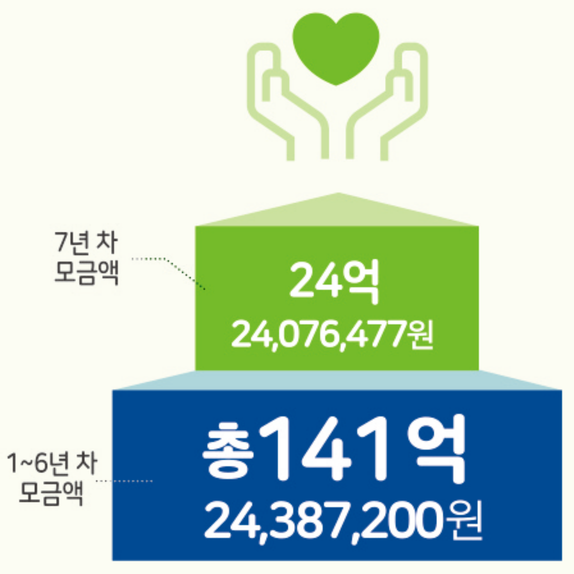
참여자 수

의미있는 장학금에 지난 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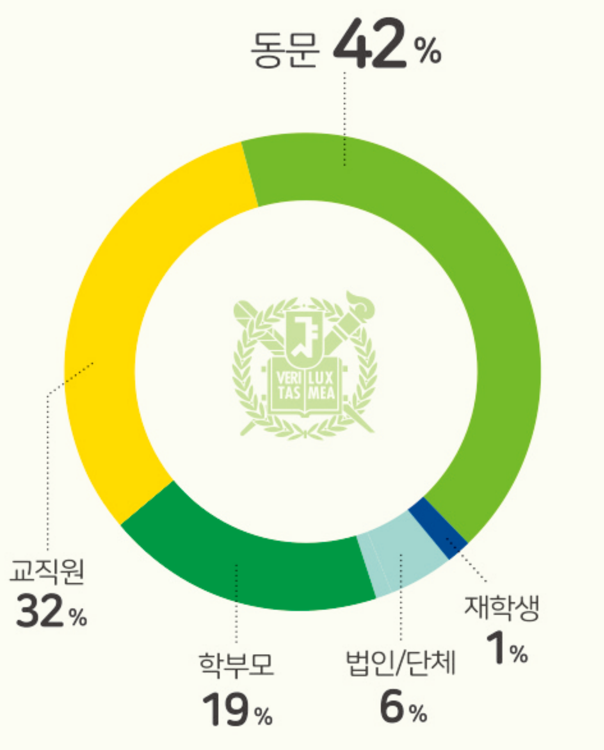
많은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기부 금액도 165억 원이 넘었습니다



만만한 기부 캠페인 모금액
총 16,548,463,677원

본교 관계에 따른 참여율

동문, 교수, 학부모, 직원들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 지급 현황

서울대학교는 만만한 기부로 모아진 기부금과
법인 회계 등의 예산으로,
매년 25억 원 이상 선한 인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SMS MMS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1666-2930 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05]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 정기후원 매월 원
☐ 일시후원 일금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대표모금기관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 발전기금(접수) Tel. 02-871-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나의 취미

“25년 수집 결실 될 미술관, 지지해 준 아내에게 헌정합니다”

고미술 수집가 황경식(철학66-70)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

오원·겸재 등 희귀 서화 소장
난임 명의 아내 위해 모자상 모아

“반세기 동안 고미술품 수집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내 덕이었습니다. 이제 미술관을 지어 아내에게 헌정하려 합니다.”

황경식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롤스의 ‘정의론’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 윤리철학의 대가다. 그에게는 오랜 꿈이 있다. 그동안 모은 고미술품 1000여 점을 집대성할 미술관을 짓는 일이다. 미리 지어둔 이름은 ‘여천(如泉) 미술관’. 자신의 호 ‘수덕(修德)’이 아닌, 아내 강명자(HPM 3기) 꽃마을한방병원 원장의 호에서 따왔다. 25년간 수집 편력이 “철학자로선 ‘외도’지만, 남편으로선 ‘외조’였다”는 황 동문을 4월 26일 그가 이사장을 맡은 서초동 꽃마을한방병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진·선·미를 꼽습니다. 진리 탐구인 철학을 50년간 했으니 진(眞)을 탐구한 셈이죠. 철학 중에서도 제가 공부한 윤리학, 즉 도덕철학은 ‘선(善)이란 무엇이냐’가 핵심이고요. 문득 내가 ‘미’를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진리는 무엇이고, 선함은 무엇인가’를 궁구했듯 ‘아름다움이 뭔지’도 알고 싶었다. 추상화 중심의 현대미술보다 구상화 중심의 고미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고미술 강좌를 주2회 5년 꼬박 듣고 고미술 연수회도 좇아다녔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책들을 읽는데 가슴 깊숙이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모으게 된다’는 말이 들어오더군요. 조선 최고의 서화 수집가 석농 김광국의 말이 원조예요. 처음부터 미술관을 짓겠다는 목표로 수집을 시작했죠.”

집요한 수집 여정을 여러 모로 지지한 이가 아내 강명자 동문이다. 아내는 언제나 그의 자랑이었다. 1966년 경희대 한의대에 홍일점으로 입학했고, 여성 최초로 한의학 박사학위도 땄다. 난임 한방치료 명의로 승승장구하며 20여 년간 임신에 성공하게 해 준 가정이 1만 5000례. 별명이 서초동 삼신할미다. “환자 시부모가 찾아와 큰절하며 ‘삼신할미가 따로 있나, 당신이 삼신할미지’ 해서 그렇게 됐죠. 허 준은 책을 써서 만대에 알려졌는데, 수많은 가정에 빛을 준 우리 아내는 누가 기억할까 싶더군요. 그 업적을 남길 징표를 찾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회화, 자수, 서예 등을 모으는 동시에 각 나라와 종교의 모자(母子)상을 구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 형상의 자애로움이 아내가 베푼 의술을 닮아서일까. 한국의 삼신할미처럼 가톨릭의 성모자상, 중국 송자관음상, 일본 마리아관음상 등 각국 종교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축원하는 형상들엔 남다른 매력도 있었다. ‘수집가 남편 잘 좀 봐달라’는 애교 수준을 넘어 ‘삼신할미’ 테마로만 따로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진심이었다.

“삼신할미가 있는 한국에서 송자관음보살상은 드물어요. 중국 전역에서 80종을 수집했죠. 한때는 일본의 마리아관음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불교의 관음이 습합(習合)된 것인데 보기엔 송자관음과 똑같아요. 400년 전 나가사키에 가톨릭이 전파됐을 때, 박해가 심해 관음보살을 놓고 마리아라고 하면서 모셨기 때문이죠. 당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보이는 것이니 찾기 힘들죠. 일부러 종교 화합을 하려 해도 어려운데, 모성으로 두 종교를 아우르는 상징이 존재했고 신도도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인터뷰를 하는 내내 벽 너머에서 요란한 공사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거슬리기는커녕 흐뭇해 보였다. “미술관을 짓기 전, 첫걸음으로 조그만 갤러리를 만들어 5월에 오픈한다”고 했다. “‘여천미술관’은 조선시대와 중국, 일본 전통미술이 함께하는 곳으로, 부속 박물관은 ‘삼신할미 박물관’이 될 겁니다. 녹록지 않겠지만 이 갤러리가 출발점이 될 거예요.”

이어 안내한 여천갤러리엔 정선의 ‘선면송석도’, 심사정의 ‘송하한담도’, 장승업의 ‘노안도’ 등 힘들게 구했다는 ‘3원 3재’의 작품은 물론 수집가의 개성이 묻은 소장품이 알차게 들어찼다. 초입에 걸린 한 여인의 초상화는 사뭇 느낌이 오묘했다. 덕혜옹주를 그린 것으로 추정하는 유화 작품이다. “10년 전쯤 도쿄 근교에서 큐레이터가 전화를 해왔어요. 팔순의 소장자가 조선 왕족의 딸을 그린 초상화로 알고 50년간 보관해왔다는데 덕혜옹주와 너무 비슷하다면서요. 보니까 옹주의 고교 시절 사진 그대로예요. 옹주의 일본인 남편이 시인이자 화가였죠. 실력을 보아 직접 그린 것 같진 않고, 헤어진 옹주가 그리워 다른 화가에게 부탁해 사진을 보고 그린 게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남편이 재혼해 얻은 둘째 아들에게까지 연락했는데 긍정도 부정도 않더군요. 꼭 진실을 알고 싶은 작품이에요.”

근대 작품도 몇 점 가지고 있다. 김환기의 경우 도기에 추상화를 그린 작품을 소장 중이고,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 걸려 있던 것을 입수한 가로 6m, 세로 3m의 유화 장생도도 김환기의 화풍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섭의 스승인 임용련의 그림 ‘십자가의 상’은 자주 대여해주던 국립현대미술관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떠나보낸 작품이다. 집무실에 한호 한석봉과 추사의 글씨를 걸어놓고 요즘도 글씨 보는 안목을 키우려 한문을 배운다.

그의 고아한 컬렉션은 끊임없이 덕을 닦는 ‘수덕’ 남편과 샘물처럼 부지런한 ‘여천’ 아내가 함께 가꿔온 삶과 닮아 있다. 30여 년 전 부부는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공익의료법인인 ‘명경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에 환원했다. 평생 가르쳐온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황 동문의 뜻이 발단이었다. “또 한 번 재산을 사회에 출연해 ‘꽃마을 문화재단’을 만들어 보려 해요. 미술관과 박물관을 지어 의료재단에서 못다한 문화사업도 하고, 장학사업도 할 겁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했던 부부로 이해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철학과 윤리 주제로 다수의 책을 낸 그는 최근 고미술 책만 내리 썼다. 3월 출간한 ‘미술관 옆 박물관’은 가려 뽑은 소장품과 촌평을 더해 앞으로 지을 미술관을 기대하게 만든다. 여천갤러리는 꽃마을한방병원 5층에 있다. 박수진 기자

사진한컷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아십니까

조갑옥 수학59-63
전 교보생명 상무

“2학년 때 4·19의거에 직접 참여, 대학본부 정문을 돌파 했던 사람입니다. 4월이면 매년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그때 숨진 학우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금년 4월 15일에도 그때 숨진 학우와 당시 우리를 이끌었던 안병규 선배 묘소를 찾아 작은 추모행사를 가졌습니다. 요즘 특징은 정치색 짙은 노조지부 깃발을 든 단체가 경내를 요란하게 휘저어서 63년 전을 회상하는 80대 참배객을 몰아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4·19성지가 그때 의거의 순수성을 모르는 정치꾼의 놀이터가 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 동문 사진 공모합니다.
3MB 이상의 화질로 300자 내외의 사진 설명을, 성함·학과·입학연도·주소·휴대폰 번호와 함께 news@snua.or.kr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동문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02-886-2219

화제의 동문 유튜버

‘차커(Chaco)’ 이동호 (서양사11-19) 동문

전자계산기 4대로 연주한 ‘보헤미안 랩소디’

‘차커(Chaco)’는 이동호 동문이 가요, 팝, 클래식, 영화OST 등 다양한 음악을 전자계산기로 연주해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2016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570여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83만여 구독자를 모았다. 그가 연주한 비발디의 ‘사계’ 중 ‘봄’ 1악장은 미국 유튜브 공식 SNS 계정에 소개되기도 했다. 채널명 ‘차커’는 작업할 때 카페인 섭취량이 무척 많은데 착안, 홍차의 ‘차’와 커피의 ‘커’에서 따왔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계기는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기타나 피아노 연주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는 한국인 유튜버들을 동경해왔다. 전공은 아니지만, 음감이나 음악적 기억력에 자신이 있었고, 많은 음이 무작위로 겹친 불협화음도 척척 알아맞힐 만큼 훈련이 돼 있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예상외로 커져 진지한 작업이 됐다.”

-8년 차 유튜버다. 기억에 남는 일화는.

“시작할 땐 미처 몰랐는데, 유튜브라는 매체가 많은 소통과 기회를 가져왔다. 촬영 도중 포기하거나 고심 끝에 고사하긴 했지만, 유명 방송 매체에 출연 제의를 받았었다. 영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이자 작가인 노먼 러브렉트가 자신의 블로그에 제 연주 영상을 올리고 지인들과 함께 즐겼던 것도 재미난 경험이었다.”

-긴 시간 활동할 수 있는 저력은 뭔가.

“계속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고픈 욕망이다. 작업을 거듭할수록 연주하고 싶은 곡들이 더 많아진다. 제 작업은 전자계산기라는 ‘우스워 보이는 악기’로 새로운 음향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탐구의식과 도전의식이

깔려 있지 않으면 유튜버도 오래 하기 힘든 직업이다.”

-전자계산기 버튼음이 특이하던데.

“국내엔 없지만, 해외에선 ‘Musical Calculator’라고 하는, 연산 기능과 더불어 버튼마다 다른 음을 내는 계산기가 꽤 많이 팔린다. 나름 재미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음악들은 계산기로 연주했을 때 제법 특화된 소리가 난다. 고전게임 같은 8비트 느낌의 소리는 향수를 자극하는 맛도 있다.”

-전공과 직업의 괴리가 커 보인다.

“원래는 피아노 유튜버였다. 음감엔 자신 있었지만, 연주 실력으론 전공자에 못 미쳐 어정쩡했다. 계산기 연주에 천착한 것은 나만의 장기를 찾기 위한 시도였다. 인문대에 진학했지만, 중고등학생 땐 작곡가가 꿈이었다. 남들은 잘 안 듣는 아방가르드한 음악을 섭렵하면서 오케스트라 곡을 써보기도 했다. 음감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 마냥 시간 낭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추천 영상과 채널 홍보 한 말씀.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의 제안으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계산기 4대로 연주한 영상(사진). 변화무쌍한 곡의 특성 때문에 연주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고, 결국 해냈을 땐 모종의 정복감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자랑스러운 서울대의 일원으로서, 세계인에게 저만의 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경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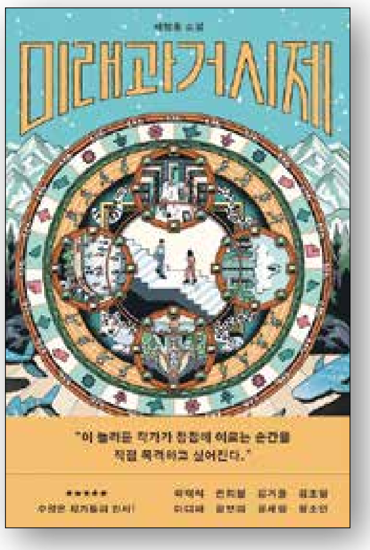
화제의 책

한국문학사 유일무이한 판소리 SF 활극

‘한국 SF가 가진 역량을 대중에게 알린 작가’. 2005년 데뷔 이후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배명훈 동문이 7년 만에 신작 소설집 ‘미래과거시제’로 돌아왔다.

이 작품에는 최근 3년간 팬데믹 시기를 통과하며 집중적으로 집필한 아홉 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이번 작품들에서 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은 더욱 경이로워졌고,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깊어졌다. 고래상어 그림을 감상하러 바다 깊은 곳으로 떠났다가 함정에 빠진 돈 쓰는 로봇 마사로 이야기(수요곡선의 수호자), 비말 차단을 위해 파열음을 완전히 제거한 미래 세계(차카타파의 열망으로), 시간 여행을 둘러싼 한 연인의 사랑스러운 미스터리(미래과거시제), 판소리 형식으로 펼쳐지는 유일무이 요절복통 로봇 전투담(임시 조종사), 종이처럼 2차원의 형태로 날아온 외계의 존재들(접히는 신들), 잠들어 있는 의식과 듀얼 가상현실이라는 구상(알람이 울리면)



미래과거시제

배명훈(외교97-01)소설가

북하우스

까지, 배명훈 동문은 언어와 시간과 공간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꿈’과 ‘만약’의 세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상상과 성찰이 맞물린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운다.

오랜 시간 공들여 쓴 흔적이 역력한 ‘임시 조종사’는 고루 탁월한 이번 작품들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어렵게 로봇 조종술을 익혔지만, 일자리가 없어 백수로 지내다 먼 타국의 부름을 받아 떠나는 인물 지하임의 요절복통 모험담이다.

재미가 보장된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은 판소리 형식이다. 작가는 근대소설 이전의 언어에 천착해 말의 근원까지 낱낱이 풀어헤쳤다가 쌓아올려 판소리 형식으로 창작했다고 술회한다. 한국문학사에서 유일무이한 과학소설이 아닐까. 아니리(장단 없이 말로 연기하는 사설)로 시작해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중중모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는 분명 눈으로 읽고 있는데 귀로 듣고 있는 듯한 청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낯선 형식과 대비되는 인물들의 친숙함이라는 장치는 이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배명훈 동문은 출판사와 유튜브 인터뷰에서 “SF소설이 과학에서 출발한 장르이긴 하지만 현대 SF는 문학적 측면이 무척 중요하다”며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때, 언어와 규칙을 조금씩 바꿔보고, 옛날 언어로도 써보고 다른 톤으로도 이야기해보는 등 실험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기 복제를 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달려가는 작가”라며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대표작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동문은 2005년 SF 공모전에 단편소설 ‘스마트 D’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타워’, ‘안녕, 인공존재!’, ‘총통각하’, ‘예술과 중력가속도’, 장편소설 ‘신의 궤도’, ‘은닉’, ‘청혼’, ‘맛집 폭격’, ‘첫숨’, ‘고고심령학자’, ‘빙글빙글 우주군’, ‘우주섭 사비의 기묘한 탄도학’, 에세이 ‘SF 작가입니다’ 등을 썼다. 2010년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김남주 기자

BOOKS

시대의 조정자

남재희(법학54-58) 전 노동부 장관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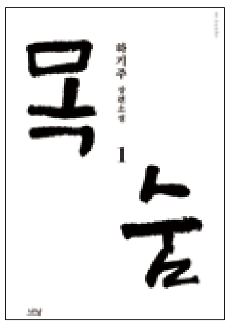
남재희 동문이 만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 20년간 쓴 글들을 집대성한 이 책은 정치 평론과 인물 분석을 통해 현대사를 돌아보고,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족적을 남긴 저자의 극적인 삶을 회고함으로써, 시대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개인의 체험은 어떻게 역사로 환원되는지 보여 준다. 남 동문은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서울신문’ 주필, 4선 국회의원, 김영삼 정부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가장 존경하는 보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언제나 남재희를 얘기했다”고 썼다.

목숨

하기주(경제59-65) 전 코오롱 대표

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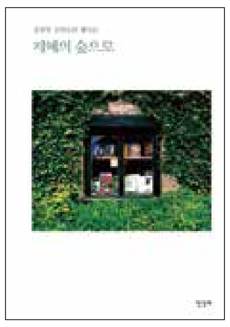
1942~1944년 일본인 비율이 가장 높고 일제의 수탈 피해가 극심했던 도시 마산을 주무대로 하고 창원, 거제 등 인근 지역과 북만주, 연해주 등 광활한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한민족의 파란만장한 삶을 파노라마처럼 그려낸 소설.

마산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강씨 일가를 비롯해 어부, 기생, 백정뿐만 아니라 북만주 동토에서 벼농사 짓는 독립운동가까지 각계각층의 인물들의 인생 역정이 극적으로 펼쳐진다. 김형국 모교 명예교수는 “사라져 가는 마산 인근의 방언을 충실히 기록했기에 언어문화사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평했다.

지혜의 숲으로

김언호(신문대학원68-77) 한길사 대표

한길사



출판인 김언호 동문의 책사진집.

다양한 빛깔의 생각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아름다운 책의 세계를 보여준다. 47년째 출판을 이어오고 있는 저자의 책 사랑을 엿볼 수 있다. 길을 걸을 때도 여행할 때도 ‘책의 길’에 대해 생각한다는 김 동문은 늘 무거운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다양한 책의 표정을 찍는다. 1987년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길섶에서 만난 책 읽는 아이들에서부터 2023년 가나자와 이시카와 현립도서관까지 책이 있는 곳에서 그의 카메라는 바쁘게 움직인다. 김 동문은 “모든 책방은 인간의 삶을 쇄신시키는 변함없는 이론과 사상”이라고 말한다.

돌연한 출발

전영애(독문69-73) 모교 명예교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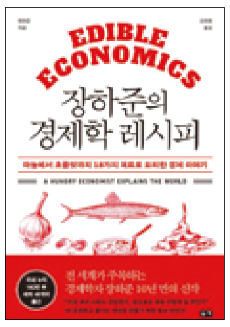
민음사

프란츠 카프카의 탄생 140주년을 기념하는 단편선.

‘변신’을 비롯해 ‘선고’, ‘시골의사’, ‘굴’ 등 카프카 문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서른두 편의 작품을 전영애 동문이 엄선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에서 아카이빙한 카프카의 친필 원고와,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라는 명문이 담긴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 대학 시절 노트에 그린 드로잉을 한데 모아 화보로 구성했다. 또한 전영애 동문이 카프카의 자취를 따라 프라하 전역을 다니며 쓴 시집 ‘카프카, 나의 카프카’ 전편을 수록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경제82-86)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 / 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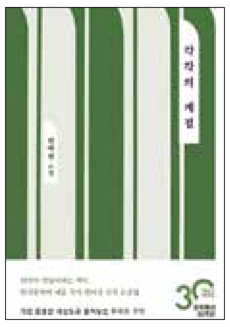
세계적인 석학이자 베스트셀러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 동문이 다양한 음식으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다.

장 동문은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18가지 재료와 음식으로 가난과 부, 성장과 몰락, 자유와 보호, 공정과 불평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민영화와 국영화, 규제 철폐와 제한, 금융 자유화와 금융 감독, 복지 확대와 복지 축소 등 우리에게 밀접한 경제 현안들을 흥미로우면서도 영양가 만점인 지식과 통찰로 풀어낸다. 경제와 관련한 우리의 고정 관념, 편견, 오해를 깨뜨리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다.

각각의 계절

권여선(국문83-88) 소설가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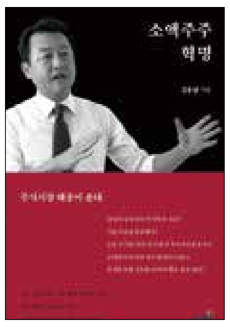
권여선 동문이 3년 만에 낸 신작. 술과 인생이 결합할 때 터져나오는 애틋한 삶의 목소리를 담아낸 ‘안녕 주정뱅이’(창비, 2016), 에두르지 않는 정공법으로 현실을 촘촘하게 새긴 ‘아직 멀었다는 말’(문학동네, 2020) 이후 일곱 번째 소설집으로, 책으로 묶이기 전부터 호평받은 일곱 편의 작품이 봄날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데 모였다.

1996년 등단해 사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글쓰기에 매진하며 많은 사람의 인생작으로 남은 작품들을 선보여온 권 동문은 이번 소설집에서 기억, 감정, 관계의 중핵으로 파고들며 한 시절을, 한 인물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소액주주 혁명

김용남(사법88-93) 변호사

CNB미디어



수원지검에서 경제 수사를 전문으로 하다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정치 평론가로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김용남 동문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까지 딴 뒤 주주 행동주의 일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정치·법의 수준으로까지 시선을 높일 때 과연 어떤 혁명이 가능할지를 이 책은 제시한다.

저자는 “1400만명의 평범한 주주들이 하나로 뭉쳐 자본시장의 혁명을 일으키고 주주 민주주의를 열 때 진정한 주식투자 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며 주식시장의 10가지 새로운 룰을 제안한다.

3분의 행복

강석호(조소91-95) 서양화가

미메시스

수필가로서의 강석호 동문이 풀어낸 일상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

회화 작가인 저자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열린 그의 전시 ‘3분의 행복’을 계기로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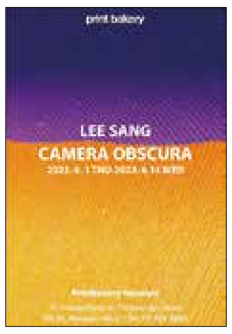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강 동문은 회화 작품만큼이나 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는 개인전 도록에 작품에 관한 글 대신 일상을 담은 수필을 넣곤 했다.

이은주 독립 전시기획자는 “강석호를 알수록 그의 회화와 유사한 정서를 담은 이 글들이 결과적으로 작업에 관한 서술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EXHIBITIONS

이혁상 동문 사진전 ‘CAMERA OBSCURA’

6월 1~14일 한남동 프린트 베이커리 플래그십 스토어



치과의사이자 사진작가인 이혁상(치의학97-01·작가명 이상) 동문의 개인전. 전시 제목 ‘카메라 옵스큐라’는 카메라의 전신격으로 르네상스 시대 풍경화의 밑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다. 이 동문은 “사진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 사진을 밑그림으로 그 위에 페인팅을 하는 제 작품세계를 대변해주는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02-795-5888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6월 25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미술관이 팬데믹 동안 휴관하며 수집한 미디어 아트 소장품전. 안규철(조소73-77)·박선민(조소92-96)·노진아(조소94-98)·박승원(서양화99-05)·류성실(조소18졸) 동문 등 동시대 각광받는 작가들의 비디오, 설치, 드로잉, 퍼포먼스,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작품이 돋보인다. 문의: 031-201-8500

CONCERTS

나상현씨밴드 참여 ‘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

6월 24~2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등지

도심에서 즐기는 피크닉 콘셉트의 뮤직 페스티벌. 모교 작곡동아리 ‘사운드림’에서 출발한 3인조 인디 록밴드 나상현씨밴드가 2일차인 25일에 출연한다. 현재 나상현(언론정보13-20)·강현웅(기계항공공학12-19) 동문, 백승렬(용대원 재학)씨가 활동 중이다. 5월 15일 신곡을 발매했다. 예매: 인터파크 등

2023 관현악 시리즈 ‘전통과 실험–풍물’

6월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전통예술을 주제로 참신한 창작 무대를 선보여온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풍물(농악)을 주제로 창작 관현악곡을 연주한다. 거문고 주자 허윤정(국악86-90 모교 국악과 교수) 동문이 거문고 협주곡 ‘Black Dragon(검은 용)’ 무대에 참여한다. 문의: 02-399-1000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or.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 사

손병두(경제60-64 전 호암재단 이사장) 5월 2일 미국 경제 뉴스 전문 방송인 CNBC 코리아 회장에 선임.

권태신(경제68-72 전 전경련 부회장) 5월 4일 한국-우크라이나 산업통상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

류 진(영문78-83 풍산 회장) 4월 23일 한미재계회 제7대 위원장(한국)에 선임.

천창수(사회교육82졸 교사) 4월 5일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시교육감에 당선.

박춘섭(무역79-83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월 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추천.

박학용(AWASB 8기 디지털타임스 대표) 4월 25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에 선임.

이상원(법학80-84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 27일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장호진(외교80-84 주러시아 대사) 4월 7일 외교부 1차관에 내정.

전봉희(건축81-85 모교 건축학과 교수) 5월 1일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

고창섭(전기공학82-86 충북대 전기공학부 교수) 4월 17일 제22대 충북대 총장에 취임.

최창식(환대원82-84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최근 서울시 출신 공무원모임인 시우회 회장에 선임.

김용화(기계설계83-87 현대차 차량제어개발센터장) 4월 25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 연구개발본부장에 선임.

김재형(사법83-87 전 대법관) 4월 13일 한국신문윤리위원장에 선임.

이태길(신문84-88 한화 사장) 4월 13일 한국광고주협회 경제홍보위원장에 선임.

장용성(경제85-89 모교 경제학부 교수) 4월 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추천.

송종근(국제경제84-88 JB금융지주 부사장) 3월 2일 JB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에 선임.

김정회(경제90-94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최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내정.

오민우(식품영양03-07 파이브가이즈 론칭 준비팀장) 5월 1일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에프지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

수 상

윤세영(행정56-61 SBS미디어그룹 창업회장) 5월 9일 제85회 AIPS(세계체육기자연맹) 서울총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AIPS 스포츠 미디어 어워즈' 공로상 수상.

김영수(법학60-64 대한민국프로당구협회 총재) 4월 25일 재단법인 소강민관식육영재단이 수여하는 제15회 소강체육대상 대상 수상자에 선정.

이중근(AMP 5기 부영그룹 창업주) 4월 24일 캄보디아 훈센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훈장' 받음.

최홍규(교대원65-68 중앙대 명예교수) 최근 '밀레니엄 문학대상' 수상.

임지순(물리70-74 포스텍 석학교수) 4월 5일 '2023 삼성호암상' 수상자(물리수학 부문)로 선정.

송호근(공업교육71-76 와이지원 회장) 5월 2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에 선정.

신학철(기계공학75-79 LG화학 부회장) 5월 2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에 선정.

정덕균(전자공학77-81 모교 석좌교수) 4월 21일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날' 기념식에서 황조근정훈장 받음.

이상용(AIP 2기 세방그룹 회장) 5월 2일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에 선정.

한상용(HPM 42기 평강교회 목사) 최근 숭실대총동문회 자랑스러운 숭실동문상(사회봉사부문) 수상.

김일륜(국악79-83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 4월 14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한국국악학회와 국립국악원이 주최 주관하는 '제8회 관재국악상' 수상.

이 근(경제79-83 모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5월 3일 제13회 학현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묵인희(동물82-86 모교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장) 4월 21일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진흥 혁신장 받음.

선양국(대학원85-92 한양대 석좌교수) 4월 5일 '2023 삼성호암상' 수상자(공학 부문)로 선정.

최경신(식품영양89-93 미 위스콘신대 교수) 4월 5일 '2023 삼성호암상' 수상자(화학 생명과학 부문)로 선정.

강현구(건축94-98 모교 건축학과 교수) 5월 1일 미국 포스트텐션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윤동권(AMP 89기 에스비정보기술 대표이사) 4월 21일 제56회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받음.

양해준(SGS 39기 우리금융지주 팀장) 최근 대한민국 환경부장관 표창 받음.

행 사 외

성기점(회화58-62 서양화가)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서울 광진구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초대전 개최.

오종남(행정70-75 전 IMF 상임이사) 4월 7일 전주 상산고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주제로 강연.

박명윤(보대원74-76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4월 17일 보건대학원 장학생 3명에게 특지장학금 200만원 수여.

김해련(AMP 63기 태경그룹 회장) 3월 18일 부친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송원 김영환(상학54-59) 장학재단 출범 40주년 기념식 및 멘토링 에세이 '조금 헤매어도 괜찮아' 출판기념회 개최.

유용원(경제83-87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3월 21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출입 30주년 기념 감사패 받음. 또 최근 군인 자녀 기숙형 학교인 한민고에 1000만원 기부.

배인경(기악99-03 피아니스트) 5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아니스트 배인경의 동행Ⅶ 귀에 익은 클래식 3' 공연.

김리진(조소01-05 CICA미술관 대표) 3월 17일 '2023 대한민국가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아트디렉터 부문).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석주(조선항공48-54 전 한국써보 대표) 4월 6일 별세(95세)
현영희(영어교육57졸 전 서울보건전문대 강사) 4월 26일 별세(94세)
이병선(통신공학49-58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4월 13일 별세(93세)
안창수(법학52-57 전 입법과 행정포럼 대표) 4월 20일 별세(90세)
김훈철(조선항공공학52-56 전 한국선박 연구소장) 4월 16일 별세(89세)
임현숙(가정교육57졸 전 이화여고 교사) 4월 26일 별세(89세)
정인직(경제58-64 전 대림산업 부회장) 4월 21일 별세(83세)
김시수(법학62-66 변호사) 5월 1일 별세(81세)
정수일(화학공학62-66 전 인하대 교수) 4월 30일 별세(80세)
남기안(경영63-67 전 산은캐피탈 부사장) 4월 4일 별세(80세)
김규태(토목공학63-70 전 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 4월 13일 별세(79세)
성신제(정치67-71 전 성신제 피자 대표) 4월 2일 별세(75세)
함영진(잠사72-77 전 디비비전 이사) 5월 1일 별세(70세)
장범선(조선해양90-94 모교 조선공학과 교수) 4월 11일 별세(51세)

| 바로잡습니다 | 지난 4월호(541호) 동정면 부음에 소개된 고 임경호 동문의 전직을 '전 경기도지사'로 바로잡습니다.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정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3. 3. 24 ~ 2023. 4.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확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 방법

구 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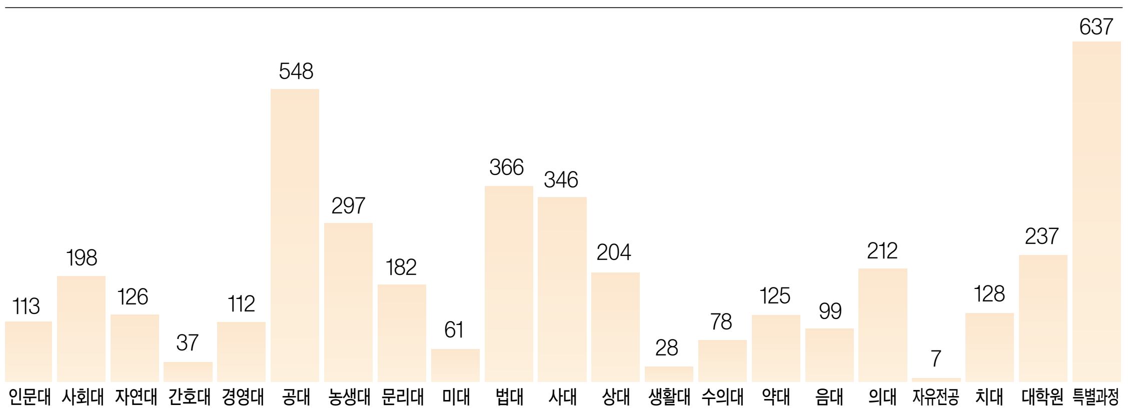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경조 서비스 이용
- ○건강검진 우대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2023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4141명 *4월 23일 현재



고문
△신영균 치대 48 △정운찬 상대 66
△정홍원 ACAD 57
자문위원
△조병우 공대 59
상임부회장
△김기병 행대원 65 △이각모 수의대 64
△조순용 인문대 71
부회장
△김석수 공대 77졸 △김춘옥 문리대 68
△박현애 간호대 76 △심규선 사범대 76
△이인용 인문대 76 △최병갑 사회대 74
감사
△곽수근 경영대 73
논설위원
△김광덕 사회대 82
평생회비 - 이사
△진조철 공대 76
평생회비 - 일반
△강영철 사회대 76 △강재빈 의대 17
△강종순 경전원 15 △강혜승 미대 87
△공병선 농생대 86 △구경철 경영대 81
△김경원 AFB 08 △김관중 SPARC 41
△김광호 SPARC 41 △김광수 공대 76
△김기완 AMP 93 △김서영 AIP 47
△김 선 자연대 81 △김정환 공대 92
△김진협 자연대 08 △김태규 인문대 92
△김판구 HPM 43 △김현수 의대 04
△김현실 공대 76 △김홍은 자연대 16
△김훈보 의대 94 △노희명 공대 08
△문은형 가정대 81 △문정희 인문대 83
△박 간 상대 68 △박상인 사회대 84
△박선규 대학원 74 △박영규 AMP 93
△박영규 ACPMP 07 △박용숙 사대 65
△박재규 AIC 10 △박종문 공대 78
△박지혜 법대 02 △박태현 법대 90
△박희갑 AMP 60 △배인호 의대 04
△백덕열 법대 67 △백수진 SPARC 41
△선우진 음대 90 △성영환 AMP 93
△소홍철 법대 91 △손봉연 의대원 10
△신경화 약대 97 △신문수 사대 70
△신민하 경영대 19 △신현식 법대 89
△안도현 SPARC 41 △안상수 법대 64
△안영호 SPARC 41 △양정연 인문대 87
△양춘금 SPARC 41 △어재동 SPARC 41
△유문선 AFP 01 △유지영 SGS 37
△윤도철 치대 81 △이경돈 법대 83
△이그레이스 SPARC 41 △이기혁 의대 02
△이동규 사회대 74 △이동렬 법대 95
△이미래 ABKI 13 △이미지 공대 03
△이상영 가정대 75 △이상훈 법대 93
△이수희 AMP 93 △이순형 법대 91
△이영애 ABKI 09 △이정복 SPARC 41
△이정수 인문대 87 △이철호 공대 79
△이택하 AMP 54 △이해령 SPARC 41
△이호석 문리대 74졸 △이희상 AMP 22
△임미경 음대 74 △임수진 미대 82
△임용빈 약대 70졸 △임현수 자연대 19
△전상호 사회대 84 △정경득 AMP 54
△정병준 의대 94 △정상규 법대 91
△정상호 농생대 86 △정소이 의대 11
△정희철 경영대 97 △조광식 SPARC 41
△조성균 AWASB 09 △조수현 음대 93
△조용완 사대 95 △조지웅 약대 53
△조진혁 SPARC 41 △조혜정 인문대 09
△주석화 농대 81 △주선아 법대 95
△차희정 경전원 17 △최윤영 SPARC 41
△최인규 SPARC 41 △최진석 SPARC 41
△하연수 미대 15 △한두희 의대 96
△허의숙 경전원 09 △현재현 법대 67
연회비 - 이사
◆인문대 △박재영 82 △추희엽 83
◆사회대 △박종석 83 △손탁현 96
◆자연대 △심은영 05
◆경영대 △김정은 99 △안호성 00
◆공대 △권오준 02 △김광명 58
△김성언 71 △김영수 58 △김용수 71
△신효순 57 △신훈철 47 △윤석구 53
△이원진 89 △이화흔 74 △정건목 91
△정봉주 82 △정인종 58 △정태헌 73
△조순행 68 △최홍영 69
◆농생대 △김종대 72 △박창호 58
△서원석 79 △안수구 73 △이상용 61
△이세표 55 △정천용 57 △정해각 55
△조수경 72
◆문리대 △강승렴 62 △김용성 62
△남시욱 54 △박석흥 63 △박성훈 69
◆법대 △강종구 78 △김강욱 78
△김권택 63 △김기중 84 △김병구 84
△김윤기 75 △김정일 60 △김태훈 68
△김희주 84 △민수광 60 △서규영 79
△서상희 68 △성쾌문 60 △송쌍종 61
△심상철 76 △심재갑 52 △안병익 88
△안태근 85 △유영상 81 △이인표 54
△이해진 86 △장원필 88 △최동섭 55
△최진원 01 △함승희 70 △허 인 80
◆사대 △국해웅 63 △김경자 63
△김낙영 82 △김봉군 60 △김영삼 73
△김진규 58 △김호성 90 △민흥기 59
△박찬구 56 △안희수 61 △오대겸 83
△왕문용 66 △임상순 60 △정의포 70
△최영준 66
◆상대 △권영정 72 △김기중 57
△김중기 54 △민창기 58 △서정도 66
△이윤우 62 △임종두 61
◆생활대 △권수애 70 △김보람 98
◆수의대 △김성수 64 △방극승 64
△이범준 78
◆약대 △김 유 60 △김진훈 71
△명석상 65 △배영일 60 △안병옥 68
△임상웅 60 △함은경 82 △허 상 58
◆음대 △강사준 63 △김영숙 85
△서윤진 94 △심선화 72
◆의대 △김곤식 53 △김명선 84
△김용봉 70 △유태연 54 △정범영 94
△한홍무 56
◆치대 △김강용 79 △김수용 82
△김지호 59 △부심환 58 △손 근 71졸
△임성수 60 △장동재 73 △한기식 65
△허준구 66
◆대학원 △서수원 89 △오성삼 75
△이석연 81 △조재연 82졸
◆경전원 △신태용 16 △장 옥 09
◆보대원 △박원길 65 △임창희 79
△최용민 86
◆신대원 △유일상 72
◆행대원 △강병규 77 △김덕중 82
△김회동 78 △안태백 64 △함용빈 73
◆AMP △남중철 48 △박승하 88
△박영민 62 △박원규 50 △신명철 08
△이예구 79 △정명철 78
◆AIP △김대원 48 △김해선 26
△박한창 17 △백기한 62 △임은재 45
◆ACAD △이상철 33
◆SGS △김종호 04 △황종헌 18
◆HPM △이석태 23 △주범로 02
◆AMPP △최종인 02
◆AMPFRI △신도범 07 △정영숙 20
◆ACPMP △박경운 17 △박상훈 18
△윤현우 14 △장재희 17
◆GLP △김원철 15 △류제완 24
△신계철 27 △이현규 40
◆ALP △조찬휘 16
◆BCP △김정옥 10 △남기수 10
△최강근 02
◆ABKI △강인구 02 △손광익 02
◆KFL △김태권 21
◆FNP △이춘복 03
◆AWASB △김정인 03 △김주형 01
◆AIC △권성옥 08 △서민웅 07
△이정재 02
연회비 - 일반
◆통합이전 △정진우 45
◆인문대 △구도완 81 △김경동 16
△김 영 88 △김진경 84 △김철수 80
△김태훈 84 △김희정 85 △노성환 82
△문승훈 79 △박명식 77 △손홍조 82
△양원철 88 △여세진 94 △오승환 06
△이수진 02 △이영화 16 △장인주 92
△전병구 84 △홍석훈 01
◆사회대 △강천석 69 △권형택 87
△김도현 91 △김동욱 78 △김태균 91
△김현균 03 △노영화 88 △맥사라 20
△문준석 92 △박종현 83 △서경화 19
△신수연 05 △심성훈 02 △염제헌 14
△윤희숙 89 △이종권 74 △임해용 97
△정윤식 10 △정종문 04 △정진성 72
△최운규 79 △함보현 95
◆자연대 △강문기 68 △김석진 78
△김희웅 83 △신유진 16 △양형진 77
△이주영 04 △임경수 06 △정상원 89
△최유경 08
◆간호대 △홍여신 51
◆경영대 △강가람 02 △도원락 94
△민봉식 79 △이지원 99 △임정오 68
△정소현 17 △정 회 82 △표현덕 96
△황명호 01
◆공대 △구자성 89 △김건민 11
△김도훈 14 △김문일 49 △김용백 61
△김준수 77 △김준학 10 △김창림 10
△김창만 68 △김택중 56 △류하니 09
△문동민 57 △문승현 75 △박근수 78
△박범기 95 △박상도 58 △박 웅 83
△박천경 52 △박현민 97 △배준일 98
△배후식 62 △백수택 80 △백영방 55
△송주인 51 △신원석 18 △신종웅 72
△안효상 15 △오형석 19 △우종민 97
△윤여준 88 △윤정목 63 △이규화 68
△이길형 69 △이남일 72 △이수길 64
△이승진 01 △이용준 83 △이의남 62
△이종수 92 △이철민 16 △장유진 07
△정준태 12 △정진삼 61 △정태영 73
△정현준 04 △조래승 56 △조수길 53
△조한욱 88 △진석현 56 △최종훈 14
△최중권 70 △최한결 15 △편영준 77
△한여름 16 △함예진 10 △홍순일 53
△홍창덕 15 △홍창식 79
◆농생대 △송환창 46 △강인목 54
△권순국 60 △김두만 52 △김영진 53
△김원문 67 △김종천 53 △김택구 63
△노재흥 56 △문수일 62 △송삼석 53
△신민종 79 △심재철 57 △염익환 78
△오수영 59 △우기원 55 △이수정 82
△이영진 82 △이준호 71 △정인모 70
△조규탁 86 △채영암 60 △최희수 81
△한관석 54 △한상익 57 △현호언 53
△홍의표 58 △김서환 14 △김아영 05
△김지현 12 △마종선 82 △목영봉 06
△손준승 88 △최준규 95
◆문리대 △기우탁 57 △김선리 64
△김 윤 58 △박기성 59 △박길봉 65졸
△박일경 71 △손후엽 61 △송인찬 59
△유병길 68 △윤용진 59졸 △윤흥로 62
△이진희 54 △임성기 62 △정서구 65
△정익성 57 △최인용 65 △홍영백 56
◆미대 △김성애 82 △문태영 89
△양수영 08 △최말순 69 △홍경희 66
◆법대 △강신철 66 △고천석 71
△김영삼 61 △김정유 84 △김정준 02
△김종욱 84 △김창기 51 △김호윤 73
△민경우 50 △박봉규 67 △박영석 56
△박진원 91 △서동희 80 △윤기원 80
△이대영 58 △이세중 53 △이승한 55
△정성욱 99 △정재형 58 △조병선 57
△진병호 67 △한기정 82 △호성호 95
◆사대 △고인수 79 △김경자 58
△김병국 56 △김세만 93 △김소연 85
△김은파 57 △김창경 61 △김학주 57
△김홍기 88 △박윤건 59 △육완진 57
△이대규 57 △이상경 65 △이주연 11
△이주영 00 △이태종 78 △정부길 59
△정신혜 11 △정주성 09 △조광현 76
△조남진 58 △하광언 60
◆상대 △구웅서 60 △권현두 60
△김규석 55 △김정현 59 △남상빈 66
△박대룡 50 △배종규 57 △배종섭 58
△서경표 71 △송인구 59 △우일균 50
△원한영 56 △이상빈 71 △이용원 58
△이인구 55 △정상용 61 △정운백 54
△조영식 49 △한철수 62
◆생활대 △김연호 75졸 △이영미 83
△전상숙 81 △채미희 77 △김혜진 13
△박민지 03 △오경진 00 △이지연 16
◆수의대 △박유순 63 △오남진 67
△이재영 95 △정용면 53 △정진화 52
△조병왕 61
◆약대 △김승래 68 △김오례 79
△김종석 58 △김지윤 12 △박은유 83
△박창서 67 △성태현 70 △송승희 99
△조유경 03
◆음대 △윤서우 98 △윤혜원 66
△임정선 57 △황인영 09
◆의대 △김성준 89 △김진태 94
△김효수 78 △박소현 08 △양석훈 07
△이승원 97 △이지은 04 △임형석 81
△전동수 44 △조맹기 63 △차상헌 75
◆치대 △강대준 62 △김유진 68
△박경정 69 △백승훈 96 △서창한 90
△손재현 02 △이시우 59 △한기완 67
◆대학원 △김동식 85 △이영두 83
△장인청 81
◆경전원 △김나영 11
◆경대원 △윤강훈 88
◆국대원 △김진서 20
◆보대원 △김귀향 79
◆의대원 △안홍율 09
◆치대원 △김은담 11
◆행대원 △강인준 71 △김경석 77졸
△김만수 18 △김재윤 83졸 △심윤수 77
△이채필 83 △조경규 87
◆융대원 △김현진 10
◆AMP △곽덕근 54 △김종훈 37
△나의수 38 △배신호 34 △성영창 26
◆AIP △박종호 09 △이창범 22
◆ACAD △김호연 11 △진진형 42
◆SGS △류민경 39 △안길전 39
◆APC △강명오 01 △송일빈 14
△오규진 09
◆HPM △김종대 16
◆ACPMP △김도연 10 △유쌍식 16
◆GLP △김분순 42 △김응욱 42
△김진희 42 △박창규 42 △전 갑 42
△한수봉 42
◆AFP △송인회 02
◆ASP △박도규 14
◆ABKI △김은자 13 △오성훈 12
△윤미정 07 △한신근 13
◆KFL △최승복 20 △최현진 16
◆FNP △최영자 13
◆AIC △김일준 46 △옹상순 07
△한상기 05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 가족음악회
2023.3.24. ~2023.4.23.

1000만원
△재단법인 관악회
△관악경제인회(회장 이부섭)
500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서병륜)
△AMP동창회(회장 윤철주)
300만원
△HPM동창회(회장 백승호)
200만원
△공대동창회(회장 정진섭)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나영일)
100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허 영)
△생활대동창회(회장 정혜원)
△치대·치대원동창회(회장 정상철)
56만원
△서종권 FNP 12
50만원
△태권도부동창회(회장 조성훈)
40만원
△백성열 인문대 01
35만원
△강민호 공대 03 △김화영 의대 04
30만원
△금진호 법대 50 △전상훈 환대원 83
28만원
△송윤화 경대원 94 △여주호 ALP 20
△배성범 사회대 98 △이지연 사대 03
△신다운 의대 09 △엄승현 공대 14
△이상경 AMP 83 △이승화 의대 20
△조영희 사대 07
21만원
△김정욱 사회대 04 △최병춘 경전원 19
△김지은 음대 83 △한의석 의대 98
20만원
△이병호 사대 70 △김규남 사회대 12
△김지희 치대 07 △손희지 자유전공 14
△조상현 사대 90 △조의식 경대원 90
△송석훈 문리대 60
15만원
△김진왕 ACAD 77 △민병관 상대 70
△송경희 음대 59 △최진용 자연대 00
△문태성 공대 98 △강태선 공대 80
△권오영 생활대 98 △기상도 인문대 96
△김철안 공대 83 △구정연 인문대 97
△김채은 자유전공 15 △박기영 의대 85
△박미영 사대 83 △서영욱 자연대 02
△조범자 가정대 89
14만원
△강해석 약대 71 △김영동 자연대 79
△김영미 약대 79 △남상덕 상대 69
△노성진 문리대 56 △문병국 자연대 79
△이우영 법대 90 △이창식 자연대 81
△조기웅 문리대 66 △조원형 인문대 98
△최 윤 의대 04 △최지은 의대 84
△황성호 공대 84 △임길선 사대 83
△하명기 HPM 36 △박효근 농대 75
△백진호 대학원 96 △서제이 법대 06
△유제만 약대 75 △이그레이스 SPARC 41
△이소정 미대 08 △이신형 공대 86
△이재용 공대 88 △이춘계 사대 72
△임경락 상대 70 △전혜자 문리대 61
△정병욱 사회대 78 △정세혁 인문대 74
△최은경 간호대 02 △감경일 경영대 07
△김동우 자연대 09 △김예지 사대 21
△김용선 경전원 08 △백수진 사대 19
△서진호 공대 85 △손승모 보대원 18
△신재혁 의대 95 △신호성 치대 84
△오남호 상대 57 △유호균 행대원 18
△이동희 보대원 90 △장동호 사회대 08
△정예지 생활대 11 △정혜승 FIP 14
△정효주 공대 10 △황신영 간호대 09
△황예은 공대 15
12만원
△이흥훈 사대 77 △이정완 생활대 01
△남궁진 인문대 98 △박원규 농생대 89
△안유신 미대 98
10만원
△이규석 사대 66 △권영용 IFP 06
△김정원 법대 83 △노윤호 GLP 12
△양준호 ALP 11 △이용근 공대 69
△이은주 인문대 87 △이호갑 인문대 74
△홍승기 인문대 75 △강구원 GLP 33
△김금수 음대 76 △박선욱 GLP 41
△박유정 환대원 90 △최기숙 사대 65
△최인선 치대 82 △김경남 농대 80
△김용환 공대 85 △김은희 AHP 08
△김학준 공대 68 △문은형 가정대 81
△박강문 사대 63 △박서환 사대 79
△성의진 공대 10 △손정배 자연대 11
△심규영 간호대 10 △오경숙 사대 72
△원세훈 공대 08 △이나영 공대 12
△이의선 인문대 85 △정승연 국대원 11
△정준호 사회대 88 △조재선 공대 87
△최호선 공대 08 △황영하 공대 10
△강민정 농생대 19 △공진흥 공대 76
△김건우 경영대 93 △김진호 사회대 84
△박솔지 약대 16 △박수민 사회대 10
△박태우 공대 05 △서장균 농생대 97
△송슬옹 사회대 13 △송재홍 사회대 19
△신동아 공대 15 △안효진 농생대 12
△이승현 농생대 17 △이용희 공대 99
△이준원 농대 74 △이태환 사회대 73
△임한혁 농생대 10 △정덕재 AIC 38
△조민정 사회대 14 △조선경 사회대 11
△황의승 공대 78
9만원
△손재택 AMP 50 △최진원 법대 01
△강민정 미대 99 △조영균 공대 12
△차승은 농생대 93 △손승희 인문대 82
△장혜민 간호대 97 △최소연 생활대 09
7만원
△강남주 ACAD 56 △고금순 ASP 09
△문은이 약대 83 △박점순 ABKI 02
△안준배 AMPFRI 14 △주한규 공대 80
△정지영 경영대 04 △김세민 공대 15
6만원
△손창규 공대 79 △송상용 문리대 55
△이준호 행대원 01 △최광종 SPARC 06
△곽두영 공대 05 △권현수 대학원 81
△김규윤 환대원 18 △김동억 농대 79
△김성훈 사회대 78 △이일화 사대 00
△이준우 공대 09 △임진홍 공대 15
△정호열 법대 74 △최규선 음대 71
△최재후 경영대 74 △허용석 대학원 80
△강은지 사대 21 △권주안 공대 18
△김대길 GLP 26 △김백남 의대 88
△김언수 공대 17 △김정현 의대 19
△김종대 HPM 16 △김주완 융대원 12
△김진양 대학원 92 △김하영 사회대 01
△김현석 행대원 20 △김혜선 사대 84
△무임연 사대 17 △문정매 사대 03
△손경민 공대 15 △양철호 농생대 89
△윤석구 ACPMP 17 △이재훈 인문대 16
△이태종 사대 78 △정윤주 사회대 14
△주종웅 공대 06 △황선유 가정대 78
5만원
△유주열 문리대 66 △강홍민 음대 16
△이상봉 공대 04 △이지원 행대원 20
3만원
△정병문 인문대 73 △고광국 SPARC 20
△고재윤 행대원 76 △김진홍 GLP 18
△홍계화 상대 66 △김민선 사회대 15
△김학길 농생대 92 △유제화 경영대 81
△김세미 공대 07 △박소미 약대 92

동문 나눔 골프대회
1000만원
△박태훈 자연대 84 종신이사

홈커밍데이
10만원
△홍완기 AMP 27

관악회 기부금
4.1~4.30/당월금액(누계금액)

△이부섭 공대 56 10억원 (15억원)
△김형진 AIP 21 1억원 (1억원)
△남정현 공대 57 2000만원 (4억원)
△정기웅 대학원 83·정현영 인문대 10 1000만원 (1억1000만원)
△강응선 상대 67 100만원 (800만원)
△김경환 의대 86 100만원 (800만원)
△김동호 문리대 62 100만원 (2억1200만원)
△김원기 GLP 31 100만원 (750만원)
△배무환 경대원 66 100만원 (133만원)
△조현오 의대 64 100만원 (400만원)
△우희명 GLP 37 50만원 (1950만원)
△고희수 경대원 73 30만원 (1170만원)
△김한중 공대 68 30만원 (510만원)
△이창건 공대 49 30만원 (270만원)
△박주미 치대 81 20만원 (360만원)
△송춘달 AMP 46 20만원 (160만원)
△용환승 공대 79 20만원 (420만원)
△이윤종 의대 87 20만원 (300만원)
△정두영 인문대 84 15만원 (60만원)
△최병묵 사회대 78 15만원 (670만원)
△강지훈 공대 89 10만원 (10만원)
△김경호 사회대 86 10만원 (390만원)
△김현일 사대 13 10만원 (340만원)
△안용주 음대 79 10만원 (1620만원)
△안혜자 상대 53 10만원 (250만원)
△윤병재 의대 93 10만원 (370만원)
△이경준 공대 98 10만원 (520만원)
△이승무 사회대 72 10만원 (480만원)
△이종일 농대 68 10만원 (30만원)
△장문철 행대원 74 10만원 (90만원)
△전상우 행대원 10 10만원 (140만원)
△정완호 사대 58 10만원 (110만원)
△정혜선 사회대 83 10만원 (420만원)
△최수아 보대원 01 10만원 (230만원)
△황마리아 SPARC 8 10만원 (60만원)
△어명하 사대 59 5만원 (400만원)
△이언의 인문대 90 5만원 (78만원)
△전기평 의대 06 5만원 (385만원)
△조효정 사회대 97 5만원 (445만원)
△최이슬 의대 14 5만원 (25만원)
△한기룡 경대원 71 5만원 (175만원)
△이상의 사대 06 3만원 (168만원)
△안수진 경전원 11 2만원 (56만원)
△이성민 자연대 10 2만원 (2만원)
△고영경 인문대 88 1만원 (6만원)
△김철진 사대 71 1만원 (18만원)
△이동철 공대 95 1만원 (15만원)`
△이상봉 인문대 86 1만원 (49만원)
△이재욱 공대 61 1만원 (62만원)
△박영신 사대 87 5000원 (18만5000원)

※ 관악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신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84학번의 추억과 2023년 뉴트로

추억의 창

이광표
고고미술사학84-88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

얼마 전 회의차 서울대 박물관에 들렀다. 10여 년 만의 학교 방문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박물관 전시를 둘러본 뒤, 대운동장과 미술관 사이를 걸어 정문을 빠져나왔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1980년대 중후반, 나의 대학시절 기억을 하나의 전시로 꾸며 본다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영화 '1987'의 몇 장면이 떠올랐다.

하나둘 되짚어 보았다. 입학 직후, 캠퍼스에서 만났던 사람들. 사복경찰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월간지 '시사영어연구'와 '창작과비평' 영인본을 판매하는 외판원들이었다. 처음엔 잘 피해다녔지만, 그들의 능숙한 입담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책은 샀지만 예상대로 거의 읽지 않았다.

학교 정문을 나서면 '광장서적', '그날이 오면' 서점이 있었다. 가끔 종로에 나가 종로서적과 교보문고에 들렀다. 종로서적과 교보문고 포장지는 교양(?)있는 대학생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서점에는 자주 들렀으나 돈은 술집에서 더 많이 쓰고 말았다.

생맥주와의 만남. 그때 500cc는 500원이었고 안주는 김, 땅콩, 오징어포, 이런 것들이었다. 대개 한 봉지에 100원이었고 땅콩만 200원이었던 것 같다. 학사주점 같은 막걸리집과 소주집이 대세였지만, 4학년 때엔 녹두거리에 작지만 깔끔한 호프집이 생겼다. 이름이 '파랑새'였다. 그 집은 작고 촉촉한 노가리가 인기였다. 마음씨 좋은 주인 아줌마는 노가리를 바구니에 담아 기둥에 걸어놓았다. 우리는 마음대로 가져다 먹었다. 그 추억 때문일까. "맥주 안주 노가리는 작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지금도 나는 주장한다.

지난해 겨울, 춘천의 강원대 박물관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다. 특강 주제는 '근대 유산과 뉴트로(New+Retro) 열풍'이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영상 몇 개를 수강생들과 함께 보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81년 9월 어느날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의 일부 내용이었다. 귀에 익숙한 시그널 뮤직(프랭크 푸르셀 악단의 'Adieu Jolie Candy') 이 흘러나오고 이종환 특유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50~60대 수강생들은 모두 탄성을 질렀다. 추억이 몰려온 것이다. 나 또한 대학 시절 이 프로그램을 자주 들었다.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 4학년) 재학생

서점 포장지, 교양의 상징이던 시절
책보다 500원 생맥주 더 즐겼지만
책장엔 여전히 황동규·김광규 시가

어느 겨울방학, 한 후배가 하숙방에 찾아와 그룹 '들국화'의 테이프를 틀어주었다. "형, 노래 괜찮지? 들국화는 뜰거야!" 그 후배는 지금도 자신의 예지력을 자랑하곤 한다. 그 테이프는 신림사거리 리어카에서 구입한 해적판이었다. 아마 1000원쯤 했던 것 같다.

이 글을 쓰며 대학시절 흔적이 좀 남아 있는지 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시집 몇 권이 눈에 들어왔다. 황동규의 '삼남에 내리는 눈'과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김광규의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대학시절 한 때, 시를 쓴 적이 있다. 몇몇과 어울려 동인(同人) 활동도 했다. 동인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2, 3년 지나고 나서 '시해체'라고 이름을 지었다. 시를 해체한다니, 멋진 이름 아닌가. 그런데 작명과 거의 동시에 동인은 해체되었다. 지금은 시를 잊었지만 가끔 이들의 시를 중얼거린다.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언제나 가슴에 와닿는다.

볼품없는 추억 몇 조각을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말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뉴트로 분위기와 조금이나마 어울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기대를 가져본다.

*이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동아일보 문화부에서 문화재 담당 기자와 정책사회부장, 오피니언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홍익대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 고려대에서 문화유산학 협동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문화재학, 박물관·미술관학, 한국미술사를 강의했다. 현재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왕들의 길, 다산의 꿈 - 조선 진경 남양주', '근대 유산, 그 기억과 향유', '명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화재 가치의 재발견', '그림에 나를 담다', '손 안의 박물관' 등이 있다.

초코파이 50년, 신화창조의 비밀

동문 기고
김용찬
농화학57-61
전 배화여대 교수
오리온 동문회장

인생이 짧든 길든 간에, 특히 100세 시대에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회에 어떤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개발해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1973년) 개발되었던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간편식'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낀 것은 6·25전쟁이 끝난 1955년 경, 고1 때 고향 보령 대천에서 봤던 한 참혹한 모습때문이었다. 3년 간의 전쟁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 보릿고개를 보내며 굶주림을 참지 못하던 터에 길가에 버려진 먹음직한 '복어 알'을 요리해 먹고, 그 맹독으로 죽어가는 청년을 두 사람이 부축해가며 '졸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장면을 2번씩이나 애타게 바라봤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허기진 사람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책임지고 만들어 내리라'는 다짐을 했던 것이 '초코파이' 개발의 시작이 아니었나 기억된다.

사실상, 한동안 잊었던 이 기억이 되살아 나도록 한 것은 대학 졸업반 시절, 경기중학교에 꼭 입학시키고 싶다는 간절한 한 부모의 요청에 따라 국민학교 6년생의 가정교사를 맡아 가르칠 때다. 시끄러운 소리에 밖을 내다 보니, 공교롭게도 박하사탕 등 캔디 제품을 생산하는 가내 과자공장 사장의 집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과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졸업 후 입대해 36개월의 만기제대 한달 전,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오리온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울대 선배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구체화됐다. '도와달라'는 선배의 요청에 따라 제대 즉시, 이양구 회장을 면접차 만나 뵙고, '오리온에 뼈를 묻으라'는 당부 말씀을 들으며, 1964년에 오리온 제과에 입사하게 되었던 것이 '초코파이' 개발의 꿈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오리온 입사 후 군대에 '비상식'으로 납품되었던 건빵의 품질개선 및 고급 비스킷, 캔디, 초콜릿, 껌, 웨하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면서 과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삼화식품)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말년에 대학 교수로서 약 13년간 봉직하며 정년퇴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기할 것은 오리온에서 개발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미국 국무성(AID) 의뢰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미국유학 선발 시험에 해태제과 개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합격하여, 1972년부터 1973년까지 FDA, 미국의 유명 식품산업체, 대학 등에서 기술 연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체류 당시 주말이면, 베이커리, 대소형 식품점, 식품 시장 등을 주로 찾아가, 과자 제품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제품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다. 당

보릿고개 겪으며 간편식 개발 다짐
미 연수때 마시멜로 아이디어 얻어
개발 초기엔 짤순이까지 동원해
한국 넘어 세계인 사랑 받아 보람

시 마시멜로 제품이 특히 많음에 놀랐고, 한국 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고심하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사람들은 평소 고기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치아가 튼튼하고, 또 껌까지 더 질긴 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조직이 말랑말랑한 마시멜로를 즐기는 것인지 궁금했다. 모양과 색깔의 화려함과 다양성 때문일까?

그때 의문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제품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비교적 단단한 비스킷과 맛을 더욱 돋구어 주는 초콜릿 코팅이라면 조직감 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크래커로 유명한 나비스코 비스킷 공장, 네슬레 초콜릿 공장, 허쉬 초콜릿 공장, 아우고스터 비스킷 공장, 스낵 및 아이스크림 공장 등 30여 공장을 방문, 연수하면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인기있는 '초코파이'의 배합표까지 작성하게 되고, 귀국 후 개발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실제 개발 초기에는 제작 기구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짤순이로 시작하여 목수를 시켜 족탑기까지 제작하고, 베이스 케이크를 만든 다음, '초코파이'를 시험 생산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시장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 마켓 테스트를 한 결과, 기록적이고, 획기적인 판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뜨거운 시장 호응에 따라 생산 기계를 발주케 되었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기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어렵게 개발, 생산된 '초코파이'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그 동안 잘 판매되지 않았던 다른 제품까지 줄사탕처럼 줄줄이 판매되는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회사별로 '대히트한 제품'에 대한 소개로 인기를 끌었던 KBS TV 프로그램, '신화창조의 비밀'에서 필자의 집까지 찾아와, 본인 소개와 함께 '초코파이'가 200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에 '대히트 제품'으로 방영되면서 많은 선후배들로부터 축하를 받았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등 해외 10여 개 공장에서 2조원이 넘는 '초코파이'가 생산, 공급됨으로써,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에서 남여노소 불문하고 무척 좋아하는 '초코파이'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 수출 면에서도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 가슴 뿌듯하다.

지금은 폐쇄된 상태지만, 개성공단 내 많은 공장에서 생산목표가 초과 달성되었을 때 '초코파이'를 격려 표시용 보너스로 지급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각자 맛을 보았지만, 나중에는 북한 종업원들 간에 '초코파이 계'를 만들어, 모아서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는 이야기, 지프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탈북한 북한 운전병이 총상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는 이야기 등은 우리를 충분히 흥분케 했다. 또한 외국에서 결혼 답례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소식도 우리를 기쁘게 하였다.

특히 대학 교수 시절, 한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는 쫑파티라 해서, '초코파이'나 캐러멜을 나누어 주며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 아주 즐거워 하며 나에게 '초코파이 박사'란 닉네임을 붙여주며 학생들이 좋아했던 추억이 그립기도 하다.

앞으로도 '초코파이'가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우유 또는 커피와 함께 먹으면 한끼 식사로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해 본다. "초코파이여, 영원하라!"

관악논단

기정학의 시대,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협업 강화해야

이태식
토목73-7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127조 1항이다.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헌법 개정 당시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문구다. 그러나 요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과 산업,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된 '기정학(技政學)'의 시대다. 글로벌 리더십을 둘러싼 패권경쟁의 단어 앞에도 당연하다는 듯 '기술'이 붙어 기술패권경쟁의 시대라고도 한다.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만큼 국가들은 첨단기술을 현재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미래의 경쟁력을 다투는 핵심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연계된 정치가 오늘날 국제질서의 현실이자 환경이 되었다. 그 속에서 각국은 경쟁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기술 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은 모두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조각이자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먹구름 같은 장벽이다.

기정학의 시대에서 치밀하고 치열해지는 각국의 전략에 맞서 우리나라도 기술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양궁처럼 우리나라가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키워낼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하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방향 아래 이를 이행할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보완하며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작년 10월, 1년여 동안의 숙의를 거쳐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선정, 발표되었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3월 제정되었다.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은 일단 그려졌으니, 이것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합심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부처 간, 정책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며, 국내·외적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해야 한다.

모든 기술 지원 사실상 불가능
전략적 지원 기술 선별 불가피

국가는 우호적 안보 환경 조성
민간주도 및 민관 협력 바람직

또한, 이렇게 전략기술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민간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가 주도식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국가는 정부 R&D 투자에서부터 우호적인 안보, 외교적 환경 조성까지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기술 기업들을 지원 사격하는 것에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민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정부의 역량이 중요한 영역이다.

국가 간 협력과 동맹 관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이미 세계는 양분되고 있고, 공급망은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중 사이의 줄타기는 우리나라의 숙명 같은 일이지만, 최근의 시류를 보았을 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보복 등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화된 한미 협력을 과학기술 분야로 적극 확대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방향일 것이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동맹이 더 끈끈해지고 있다. 이달 중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이 과학기술 주요 인사와 함께 대규모 방한을 할 예정이라 다양한 방면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우주 탐사뿐 아니라 양자, AI, 바이오 등 협력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과학기술만큼 협력의 효과가 큰 분야도 없다. 이 계기를 잘 살려 우리나라 과학기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의 국가와도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산업적 차원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기술패권 경쟁의 구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기정학적 관점에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이 한국의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사고의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과학기술이 국가 간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과학기술과 외교·안보가 더욱 밀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외교·안보와 과학기술이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과학기술을 아는 외교 전문가와 외교·안보를 잘 아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기정학의 시대, 무한 기술경쟁 속에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와 외교·안보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느티나무칼럼

학창 시절부터 사회에 기여를

전경하
독어교육87-91
서울신문 수석부장
본지 논설위원

관악구에 전세사기 피해 많아
피해자 돕는 동전모으기 제안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는 경기도와 맞닿아있다. 서울 중심지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서울에서 거주 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꼽힌다. 주택도 전세에 많이 쓰이는 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의 비율이 절반(49.7%)이다. 전국 평균(19.0%)은 물론 서울 평균(36.1%)보다 훨씬 높다. 지대가 높은 편이라서 반지하·지하 주택수가 1만 6265호(2021년 기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외국기업의 서울 주재원인 지인은 본사에 전세 제도를 납득시키기가 어려워 그냥 월세로 살았다. 일정 기간 목돈을 맡겨놓고 산 뒤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뿐 이행을 강제하는 공적 수단은 없다. 최근에야 집주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늘었지만, 그전까지는 깜깜이 계약이었다.

결국 사달이 났다.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데도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들 한다. 전세계약 2년의 특성에다 그동안 다락같이 올랐던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곳으로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3곳을 꼽았다.

최근 들어 서울대 입학생 중 서울 강남·서초 또는 수도권 비중이 높다며 교육 양극화 등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서울대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우려일 거다. 기우 또는 질시라고 치부하지 말고 학창 시절부터 조금씩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기여하려는 노력을 하자. 좋은 일도 작게 주변부터 자주 해봐야 크게 널리 잘한다.

천원 학식부터 시작하자. 천원 학식이 재정이 어려운 대학의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 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을 더욱 소외시킨다는 논란이 많지만 서울대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 동창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천원 학식은 그대로 확대하고 그만큼 동전 모으기를 하길 제안한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보편화되면서 어쩌다 손에 들어온 동전은 처치 곤란이 되어 어딘가에 쌓여 있다. 동전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듯 모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25개 자치구별 비중을 보면 관악구는 1.4%(2020년 기준)로 강북·도봉구(각 0.8%), 은평·중랑구(각 1.1%)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다. 서울대 입학 전후의 삶은 선택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어졌던 헌신적인 부모 덕이 크다. 그렇게 누린 행운을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내밀어보자.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학우가 있을 수도 있다.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종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or.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행

소중한 나눔의 씨앗이 관악의 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나눔의 정신을 소중히 되새기며 정성으로 마련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 장학빌딩 얼굴부조, 이름각인
- 건강검진비 지원
- 장학금 명칭 부여, 가업승계·세무금융 컨설팅
- 상조서비스 지원
- 감사패, 기념물품 발송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주요행사 초청

예우내용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장학빌딩	얼굴부조	✔				
	이름각인	✔	✔	✔	✔	
장학금 명칭 부여		✔	✔	✔		
건강검진비 지원		✔	✔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	✔			
세무금융컨설팅 제공		✔	✔	✔		
상조서비스 지원		✔	✔	✔	✔	
감사패		✔	✔	✔	✔	
기념물품 발송		✔	✔	✔	✔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	✔	✔	✔
주요행사 초청		✔	✔	✔	✔	✔

※ 기부 및 예우 프로그램은 기부금 납입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장학금 명칭부여	• **5천만원 이상**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장학생 선정 가능
건강검진비 지원	• 건강검진 예약 및 비용 지원 **10억원 이상** : 평생 | **5억원 이상** : 5회 | **1억원 이상** : 1회 * **지원병원** :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차병원 청담병원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 **1억원 이상** 1:1 무료 자산관리 플랫폼 컨설팅 제공
세무금융 컨설팅 제공	• **5천만원 이상** 자산설계,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제공
상조서비스 지원	• **10억원 이상** : 장례차량, 관, 수의, 장례도우미, 묘비건립, 자서전 발간,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 • **1억원 이상** :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묘비건립 등 • **1천만원 이상** :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

※ (재)관악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신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참여 안내

무통장 입금

* **장학금 기부금 :** 신한 140-006-909438 / 우리 1005-202-771270 / 농협 069-01-272391
* **사회공헌사업 기부금 :** 신한 140-013-437837
· **예금주** : 재단법인 관악회 (※ 송금인란에 기부자 성명, 입학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 **은행계좌, 신용카드 모두 가능**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재단법인 관악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T** 02-879-8288
F 02-703-0755 | **M** 010-4212-0755 (문자수신전용) | **E** scholarship@snua.or.kr **H** www.snua.or.kr